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요약본

2025. 12.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요약본

2025. 12.

목 차

01 연구 개요	1
02 인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진단	3
03 청년일자리 정책 동향 및 수행 체계	18
04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진단	24
05 인천광역시 청년 채용기업 실태조사	26
06 인천 청년 FGI	42
07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유형 진단 및 우수사례	49
08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59
09 청년 일자리 정책 실행계획	63

표 목 차

[표 1-1] 연구 방법	2
[표 2-1] 청년 인구수 및 비중(2024년 연앙인구 기준)	3
[표 2-2] 학력별 청년인구 비중(2024년 하반기 기준)	4
[표 2-3] 지역별 청년층 고용 지표 현황(2024년 하반기 기준)	5
[표 2-4]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 종사상지위(2024년 하반기 기준)	5
[표 2-5] 지역별 청년 취업자 종사상지위(2024년 하반기 기준)	6
[표 2-6] 지역 간 근로 시간 구간별 청년 취업자 비중 비교(2024년 하반기 기준)	7
[표 2-7] 지역별 20·30대 취업자의 급여 수준 비교(2024년 하반기 기준)	8
[표 2-8] 지역별 청년 취업자 종사 사업체 규모 비중(2024년 하반기 기준)	9
[표 2-9] 지역별 관내·외 청년 취업자 임금 수준(2024년 하반기 기준)	10
[표 2-10] 지역별 관내·외 청년 취업자 종사 사업체 규모 비중 차이(2024년 하반기 기준)	10
[표 2-11] 인천광역시 관내·외 청년 취업자 종사 산업 비중 차이(2024년 하반기 기준)	11
[표 2-12] 인천광역시 관내·외 청년 취업자 종사 직업 비중 차이(2024년 하반기 기준)	11
[표 2-13] 지역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활동(2024년 하반기 기준)	12
[표 2-14] 인천시 청년 구직자 희망 직종 및 구직자 대비 구인 건수 상위 직종(2023년 기준)	14
[표 2-15]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15
[표 2-16] 지역별 청년 취업자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2023년 기준)	15
[표 2-17] 지역별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2023년 기준)	16
[표 2-18] 지역별 실업자 훈련 현황(2023년 기준)	16
[표 2-19] 지역별 근로자 훈련 실시 인원수 및 비중(2023년 기준)	16
[표 2-20] 직종별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 비중(2023년 기준)	17
[표 3-1] 2025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시행계획	18
[표 3-2] 2025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목표	18
[표 3-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부서별 담당 업무	19
[표 3-4] 청년정책 수행 부처의 담당부서 여부 및 청년정책 수	20
[표 3-5] 특·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비교	21
[표 3-6] 특·광역시 청년정책 담당조직 현황	21
[표 3-7] 특·광역시 청년지원센터 현황	22
[표 3-8] 지역 청년지원센터 도입에 따른 변화사항	23

표 목 차

[표 4-1] 인천광역시 부서별 주관 정책 현황	25
[표 5-1] 조사 항목	26
[표 5-2] 응답 사업체 특성	27
[표 5-3]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28
[표 5-4] 지난 1년 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 여부 (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29
[표 5-5]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계획 여부 (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30
[표 5-6] 신입 청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35
[표 5-7] 청년층에게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향후 도입 여부 의사(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36
[표 5-8] 문제점 진단	40
[표 5-9] 기업 요구 및 정책 제언	40
[표 5-10] 직무 미스매치에 따른 악순환 구조	41
[표 6-1] 조사대상 그룹 개요	42
[표 6-2] FGI 주요 조사 항목	43
[표 7-1] 일자리 정책 유형별 특징	49
[표 7-2]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특징	50
[표 7-3] AI 산업으로 분야 재편 전후 비교	51
[표 7-4]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및 참여 현황	54
[표 7-5]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의 참여유형 변화 과정	55
[표 8-1]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SWOT분석	5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2
[그림 2-1] 특징별(연령·성별) 인천 청년인구 비중(2024년 연앙인구 기준)	3
[그림 2-2] 2030년까지의 인천 청년인구 변화 전망(연앙인구 기준)	4
[그림 2-3] 지역별 청년 취업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2024년 하반기 기준)	6
[그림 2-4] 지역별 청년 취업자 급여 수준(2024년 하반기 기준)	7
[그림 2-5] 사업체 규모별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 종사 비중(2024년 하반기 기준)	8
[그림 2-6] 지역별 청년 취업자 관외 취업 비중	9
[그림 2-7] 인천 청년 취업자 관외 취업 비중 변화	9
[그림 2-8] 지역별 청년 실업자 구직 기간(2024년 하반기 기준)	12
[그림 2-9] 청년 구직자 대비 구인 건수(전체 구인 건수 대비, 2023년 기준)	13
[그림 2-10] 청년 구직자 대비 구인 건수(청년층 유효 구인 건수 대비, 2023년 기준)	13
[그림 2-11] 청년 구직자 희망 직종과 구인 건수의 관계(2023년 기준)	14
[그림 4-1] 인천광역시 주관 정책 현황	24
[그림 5-1] 지난 1년 간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	29
[그림 5-2] 지난 1년 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 수	30
[그림 5-3]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규모	31
[그림 5-4]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희망하는 직무	31
[그림 5-5] 청년 채용의 어려움 정도	32
[그림 5-6] 청년 채용에 있어 주된 어려움	32
[그림 5-7] 청년 채용 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	33
[그림 5-8] 청년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퇴사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	34
[그림 5-9] 신규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여부(복수응답)	34
[그림 5-10] 선호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비중	37
[그림 5-11] 인천시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	37
[그림 5-12] 청년채용 관련 인천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경로	38
[그림 5-1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인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인지도_요약	38
[그림 5-14]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인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필요성 (5점평균)	39
[그림 5-15] 인천시 청년고용 일자리 정책 만족도	39

그림목차

[그림 6-1] FGI 핵심 결과 요약 비교	46
[그림 6-2] FGI 진행 과정	47
[그림 7-1] 자치구별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현황	50
[그림 7-2] 청년취업사관학교 연간 교육생 수 및 취업률	51
[그림 7-3] 청년취업사관학교 2.0 비전 체계	52
[그림 7-4] 청년취업사관학교 2.0의 지역산업 거점별 특화과정 운영(안)	52
[그림 7-5]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참여 과정	53
[그림 7-6] G-JUMP 거버넌스 구성	56
[그림 7-7]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57
[그림 8-1] 인천 청년일자리 현황 종합 진단	59
[그림 8-2] 인천시 청년일자리 3대 핵심과제 도출 결과	60
[그림 8-3]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비전 및 4대 전략방향	61
[그림 9-1] 리버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방안	64
[그림 9-2] 인천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방안	66
[그림 9-3] 커리어 빌드업(Build-up) 멘토링	69
[그림 9-4] 인천유스톡톡 고도화 사업	71
[그림 9-5] 청년정책 행정체계 혁신 사업	73
[그림 9-6] 청년도약기지 디지털 역량강화(Blending)	78
[그림 9-7] 자산형성 및 복지 관련 현행 문제점과 솔루션	79
[그림 9-8] 재직 청년 자산형성 및 복지 통합지원	80
[그림 9-9]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82
[그림 9-10]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84
[그림 9-11] 인천 청년일자리 정책 5개년 통합 로드맵	85

0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의 일원으로서 서울·경기와 함께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표를 보이고 있음.
 - 인천 청년인구는 2024년 기준 약 83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11.2% 감소하였음.
 - 인천 청년 취업자 중 정규직 비중은 62.1%로 전국 최하위 수준
 - 18~29세 청년의 임시직·일용직 비중은 31.7%에 달함.
 - 산업구조 측면에서 인천은 남동공단, 주안공단 등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업·IT·헬스케어 등 청년 선호 직종의 일자리가 부족함.
- 따라서 인천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기존 정책의 효과성 점검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약기지, 청년복지포인트, 드림통장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의 체감도와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상황

2. 연구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인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함.
 - 둘째, 현행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점·약점을 분석함.
 - 셋째, 청년과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사각지대와 개선 과제를 도출함.
 - 넷째,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탐색함.
 - 다섯째, 청년 노동 생애주기에 기반한 통합적 지원체계와 단계별 정책 제언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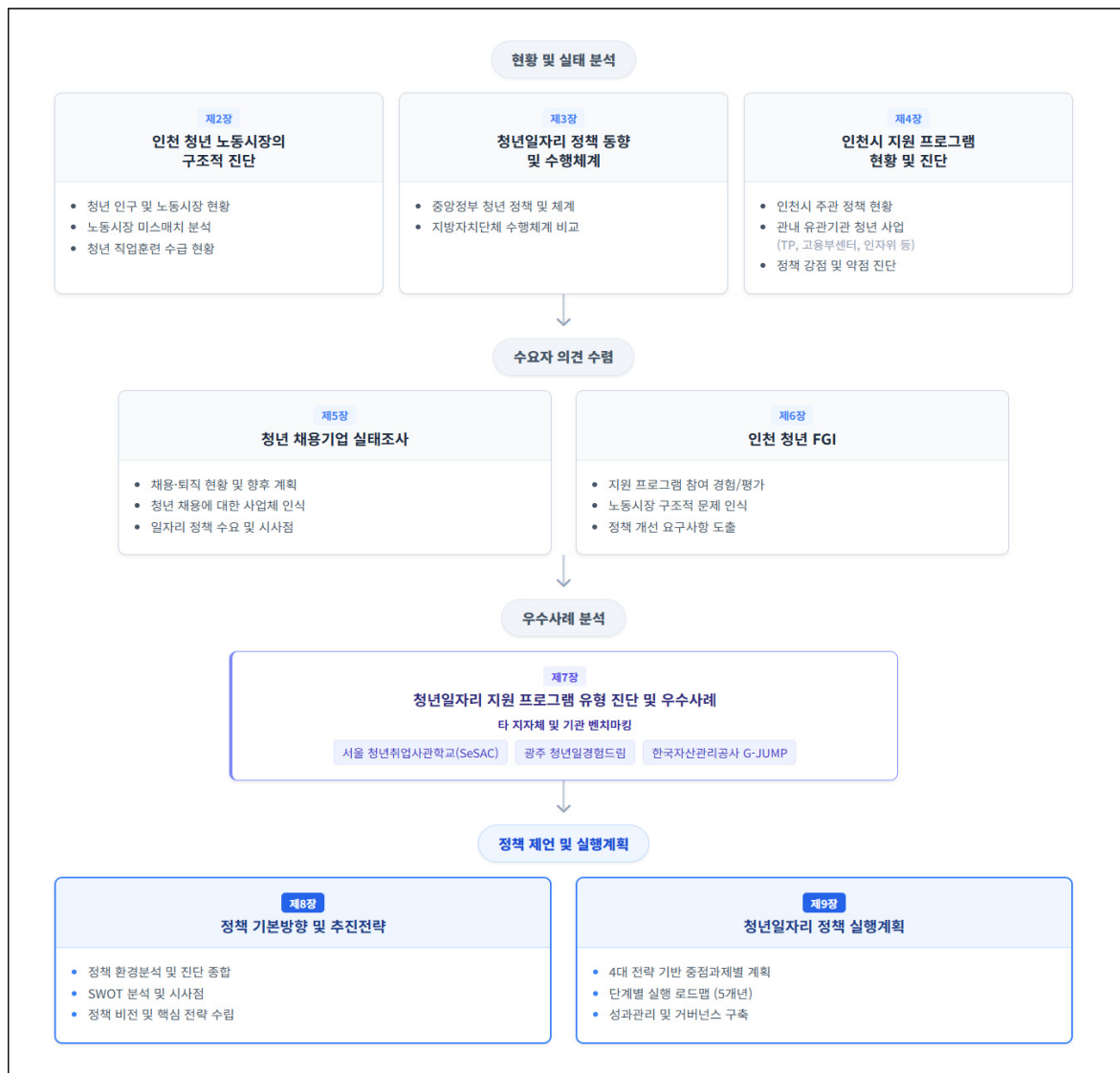
3. 연구 방법론적 접근

○ 본 연구는 인천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 통계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사례분석 등 복합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표 1-1] 연구 방법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문헌 연구	• 청년정책 관련 법령, 계획, 선행연구 검토
통계분석	• 주민등록인구, 지역별고용조사, 장래인구추계 등 분석
설문조사	• 인천 소재 청년 채용 기업 대상 실태조사
FGI	• 청년정책 참여자·미참여자 그룹 심층면접
사례분석	• 서울, 광주 등 국내 우수사례 분석

[그림 1-1] 연구 흐름도



출처: 연구자 작성

02 인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진단

1. 청년인구 현황

- 인천시의 18~39세 청년인구는 2024년 기준 약 82.4만 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함.
- 인천시 청년인구의 규모는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290.4만명)에 이은 2위이며, 청년 비중은 서울(31.3%)과 대전(28.7%)에 이은 3위에 해당함.

[표 2-1] 청년 인구수 및 비중(2024년 연앙인구 기준)

(단위: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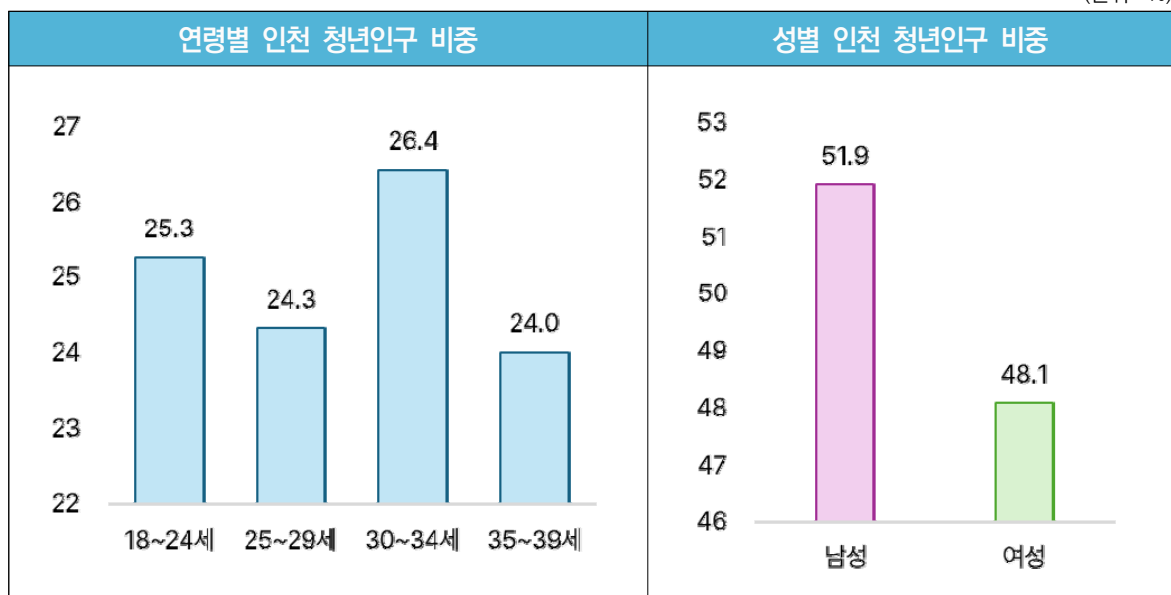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청년 인구수	290.4	80.6	59.7	82.4	38.8	41.2	27.6	378.4	1,352.6
(비중)	(31.3)	(24.7)	(25.3)	(27.5)	(27.5)	(28.7)	(25.1)	(27.8)	(26.5)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청년인구가 14.6%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의 청년인구는 12.0% 감소하여 전국 대비 낮은 감소세
- 인천시 청년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4세 인구 비중이 26.4%로 가장 높음.
 - 18~24세의 비중은 25.3%, 25~29세는 24.3%, 35~39세는 24.0%를 차지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1.9%로 여성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2-1] 특징별(연령·성별) 인천 청년인구 비중(2024년 연앙인구 기준)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연구자 재구성)

- 학력별 청년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전국 및 다른 특·광역시 대비 높은 반면, 대학 졸업 및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인천시 청년층 중 고졸 이하 비중은 44.4%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46.3%) 다음으로 높고, 전국(41.6%)과 비교해도 2.8%p 높음.
- 반면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53.4%로 전국 대비 1%p 낮고,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2.2%로 전국 대비 1.9%p 낮음

[표 2-2] 학력별 청년인구 비중(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

구분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서울	34.3	59.5	6.1
인천	44.4	53.4	2.2
경기	41.5	54.1	4.3
전국	41.6	54.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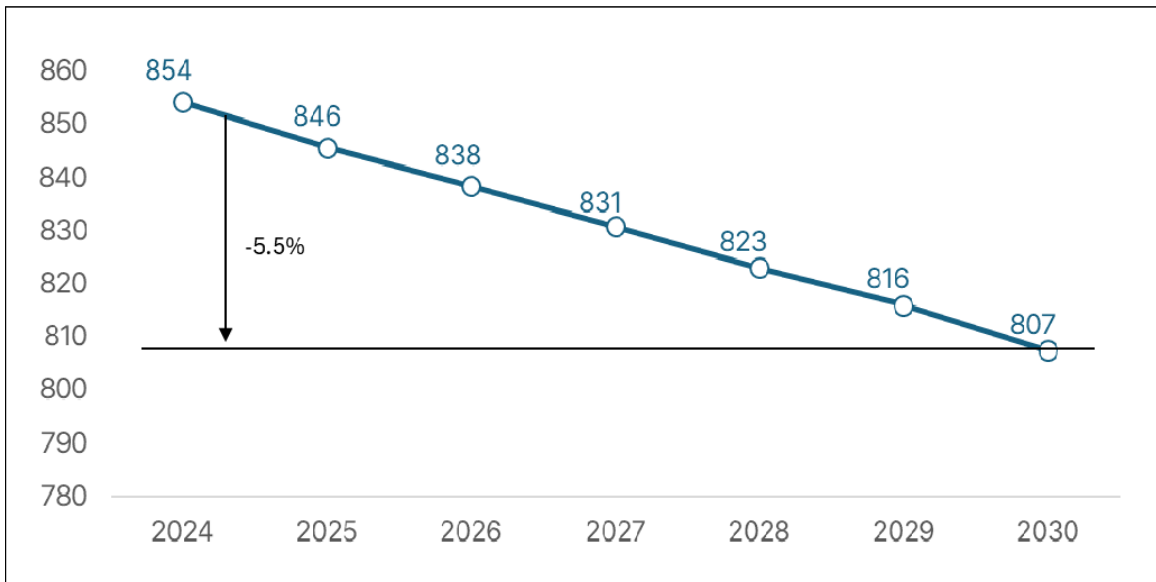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2030년까지 인천광역시 청년인구 수는 2024년 대비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85.4만 명 수준이었던 인천 청년 인구수는 2030년 80.7만 명까지 하락

[그림 2-2] 2030년까지의 인천 청년인구 변화 전망(연앙인구 기준)

(단위: 천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 장래인구추계는 외국인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4년 수치는 추계치라는 점에서 주민등록인구와 일부 차이가 있음.

2. 청년 노동시장 현황

1) 일반현황

- 인천 청년층은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특광역시 중 서울(73.7%)에 이은 2위 수준을 보이며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임
- 다만, 인천시의 청년 실업률은 4.6%로 특광역시 중 대구와 울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국 대비로도 1.0%p 높아 구직의 어려움을 시사함.

[표 2-3] 지역별 청년층 고용 지표 현황(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서울	73.7	71.0	3.8
인천	72.6	69.2	4.6
경기	73.5	70.9	3.5
전국	70.5	67.9	3.6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인천 청년 취업자 중 정규직은 62.1%이며, 비정규직 비중은 27.1%로 나타남.
- 인천시 청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9.2%, 비임금근로자는 10.8%(자영업자는 10.0%, 무급가족종사자는 0.8%)

[표 2-4]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 종사상지위(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년 미만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18~39세	89.2	62.1	6.7	20.4	10.0	0.8
18~29세	94.5	54.2	8.5	31.7	4.8	0.7
30~39세	85.6	67.4	5.4	12.8	13.5	0.9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본 표에서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업무 내용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비정규직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천 청년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 인천시 청년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9.2%로 전국과 유사한 수준
 - 다만 인천시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27.0%)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대비 2.0%p 높음

[표 2-5] 지역별 청년 취업자 종사상지위(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년 미만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서울	65.3	7.0	18.8	8.4	0.5
인천	62.1	6.7	20.4	10.0	0.8
경기	62.6	6.9	19.9	9.9	0.7
전국	64.2	5.9	19.1	9.7	1.1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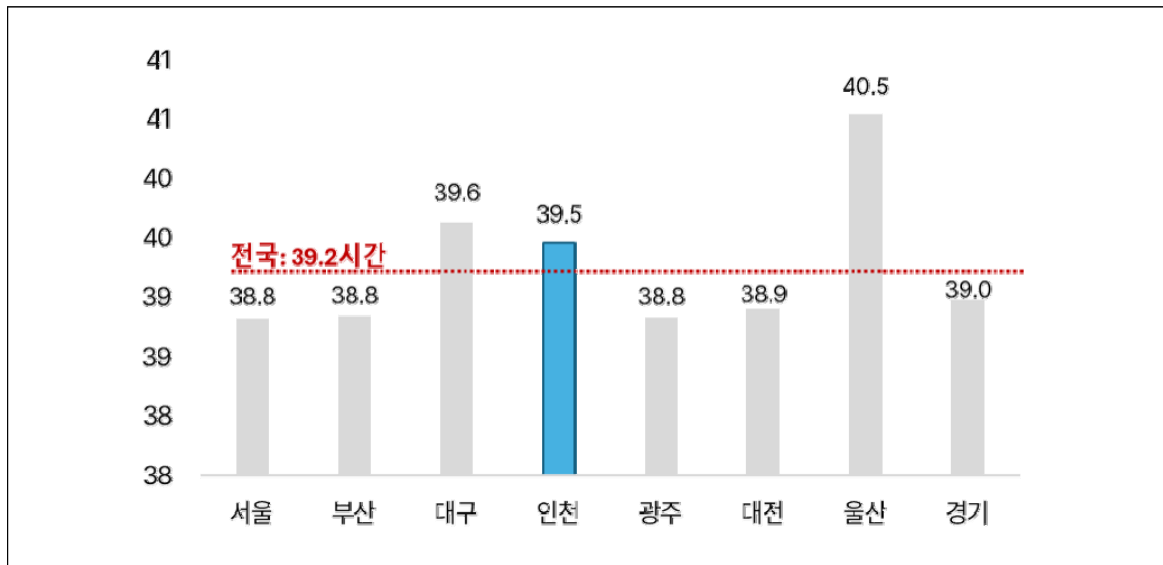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본 표에서 비정규직은 계약기간(2년 미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업무 내용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비정규직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천 청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9.5시간으로 나타남.
 - 인천시 청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40.5시간)과 대구(39.6시간)에 이은 3위 수준이며, 전국(39.2시간) 대비로도 0.3시간 가량 높음.

[그림 2-3] 지역별 청년 취업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시간)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근로 시간을 구간별로 나뉘었을 때, 35시간 미만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낮고 전일제 비중은 높은 편임.
- 35시간 미만 시간제 비중은 15.9%로 특광역시 중 울산과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낮으며, 전국과 비교하여도 0.9%p 낮음.
- 시간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높은 전일제 일자리가 많음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한 일자리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비중은 7.1%로 전국 수준을 소폭 상회함.

[표 2-6] 지역 간 근로 시간 구간별 청년 취업자 비중 비교(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

구분	15시간 미만	15~35시간	36~52시간	52시간 초과
서울	4.3	12.0	78.1	5.6
인천	4.0	11.9	77.0	7.1
경기	4.9	12.7	75.7	6.8
전국	4.3	12.5	76.3	6.9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인천 청년 취업자의 임금은 287만 원이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함.
- 인천시 청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전국 대비 약 10만원 가량 낮으며 서울의 89%, 경기의 95% 수준

[그림 2-4] 지역별 청년 취업자 급여 수준(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만 원)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인천시 20대 청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30대로 오면서 그 수준이 낮아짐.
- 인천시 20대 청년 취업자의 임금 대비 30대 임금 수준의 배율은 1.37배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데, 이는 인천 청년 취업자의 임금 상승률이 타 지자체 대비 낮을 가능성을 시사함.

[표 2-7] 지역별 20·30대 취업자의 급여 수준 비교(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만 원, 배)

구분	18~29세(A)	30~39세(B)	B/A
서울	249	377	1.51
인천	237	325	1.37
경기	234	352	1.51
전국	235	339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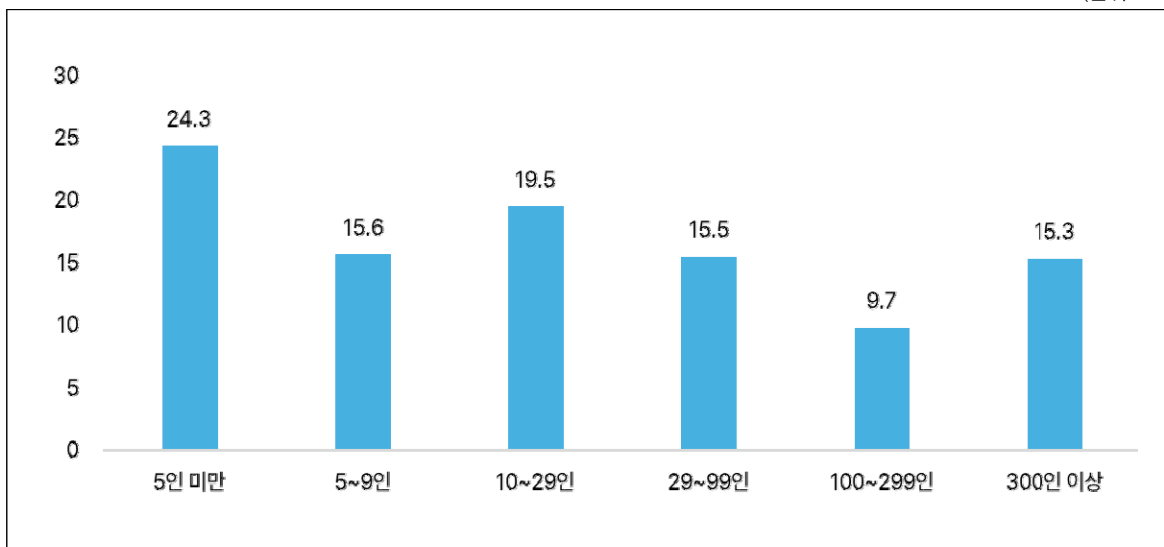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종사 사업체 규모별 인천시 청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300인 이상은 15.3%로 나타남.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항목 등의 예외 대상이라는 점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그림 2-5] 사업체 규모별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 종사 비중(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인천시 청년 취업자의 종사 사업장 규모는 전국 및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비중은 특광역시 중 서울(19.7%)과 대전(23.4%), 울산(23.4%) 다음으로 작으나, 전국 대비 0.8%p 높게 나타남.

[표 2-8] 지역별 청년 취업자 종사 사업체 규모 비중(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구분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서울	19.7	32.5	15.9	11.3	20.5
인천	24.3	35.1	15.5	9.7	15.3
경기	23.1	33.6	16.5	10.3	16.4
전국	23.5	32.9	16.4	10.6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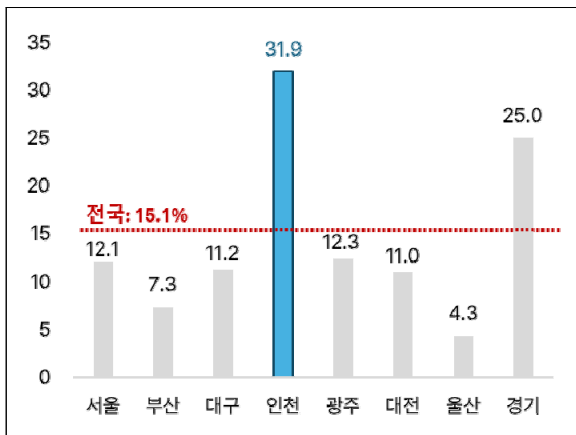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인천 청년 취업자의 관외 취업 비중은 3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전국(15.1%) 수치의 2배에 달하며, 같은 수도권 내 서울(12.1%)과 경기(25.0%)에 비해서도 높은 걸로 나타남.
 - 2024년의 관외 취업 비중(31.9%)은 2014년(30.2%)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이나,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6] 지역별 청년 취업자 관외 취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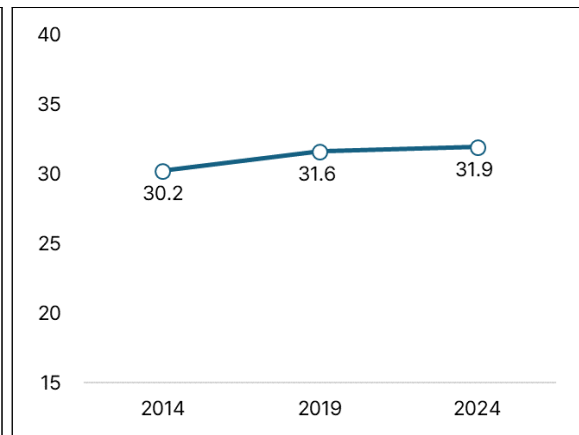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함

[그림 2-7] 인천 청년 취업자 관외 취업 비중 변화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각 연도 하반기)

*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일반적으로 10월 중순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함

-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 중 관외 취업자 임금은 관내 취업자 대비 약 44.4만 원 더 높음.
- 인천시의 관내·외 임금 격차(44.4만 원)는 서울 및 경기도 등 타 수도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인천시 청년층이 열악한 관내 노동시장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경제적 유인에도 관외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함.

[표 2-9] 지역별 관내·외 청년 취업자 임금 수준(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관외 취업자(A)	관내 취업자(B)	차이(A-B)
서울	362.8	317.5	45.3
인천	316.9	272.5	44.4
경기	339.8	289.4	50.4
전국	336.7	289.4	47.3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종사 사업체 규모를 비교했을 때, 관외 취업자가 관내 취업자 대비 더 큰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향.
- 인천 청년 중 관외에서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은 관내 취업자 대비 13.8%p 낮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은 4.1%p 높음.

[표 2-10] 지역별 관내·외 청년 취업자 종사 사업체 규모 비중 차이(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p)

구분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서울	-7.4	-4.9	3.0	-0.6	10.0
인천	-13.8	2.1	5.3	2.2	4.1
경기	-12.8	-3.9	4.5	4.6	7.5
전국	-11.3	-2.2	4.0	2.5	7.0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관내·외 근로자의 규모별 비중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관외 취업자의 해당 규모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경우 양의 값을 나타냄.

- 출판업과 전문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에서 관내·외 취업자 종사 비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관외 취업자의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은 대부분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인천 내 일자리의 수급 간 미스매치 또한 관외 취업의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표 2-11] 인천광역시 관내·외 청년 취업자 종사 산업 비중 차이(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p)

구분	관외 취업자 산업 비중(A)	관내 취업자 산업 비중(B)	차이 (A-B)
출판업	7.0	0.9	6.1
전문서비스업	4.5	1.8	2.7
사업 지원 서비스업	4.8	2.4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3	0.3	2.0
⋮	⋮	⋮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관내·외 근무자 간 종사 비중 차이가 가장 큰 10개 산업을 제시함

-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에서도 관내·외 취업자 간 높은 비중 차이가 있음.
 - 정보·통신 관련 전문 기술직과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문화·예술·스포츠 관련직 등에서 종사 비중 차이가 큰데 해당 직업들 또한 모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임.

[표 2-12] 인천광역시 관내·외 청년 취업자 종사 직업 비중 차이(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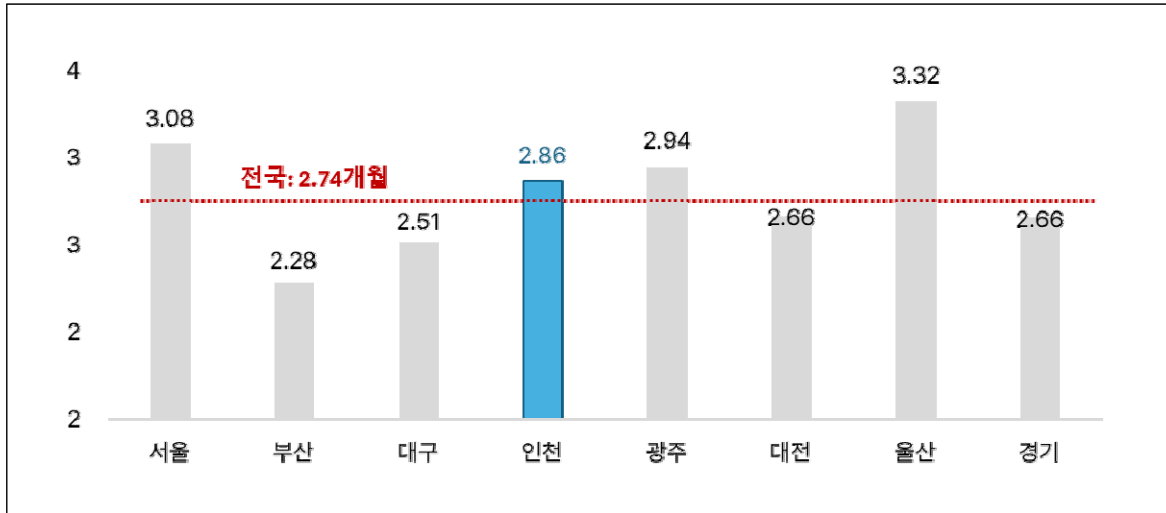
구분	관외 취업자 직업 비중(A)	관내 취업자 직업 비중(B)	차이 (A-B)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7.2	1.2	5.9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7.5	2.5	4.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10.1	5.7	4.5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6.6	4.3	2.3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3.0	0.9	2.0
⋮	⋮	⋮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관내·외 근무자 간 종사 비중 차이가 가장 큰 10개 산업을 제시함

- 인천시 청년 실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2.86개월로 나타남.
 - 이는 전국 평균인 2.74개월 대비 소폭 높으며,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3.32개월)과 서울(3.08개월), 광주(2.94개월)에 이은 4위에 해당함.

[그림 2-8] 지역별 청년 실업자 구직 기간(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개월)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인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14.5%는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시점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할 수 없었을 경우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인구를 실업자로 처리하면 인천 청년실업률은 9.6%로 상승함.
- 인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로 ‘교육·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의 활동을 했으나, ‘쉬었음’ 비중도 21%에 달함.
 - 특히 ‘쉬었음’ 비중은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전국(19.4%) 대비로도 1.6%p 높음

[표 2-13] 지역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활동(2024년 하반기 기준)

(단위: %)

구분	육아가사	교육 취업 준비	쉬었음	심신장애	기타
서울	12.8	64.9	19.9	1.2	1.2
인천	22.5	53.4	21.0	2.1	1.0
경기	21.3	56.7	19.4	1.5	1.0
전국	19.2	58.8	19.4	1.5	1.0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2024년 하반기)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토)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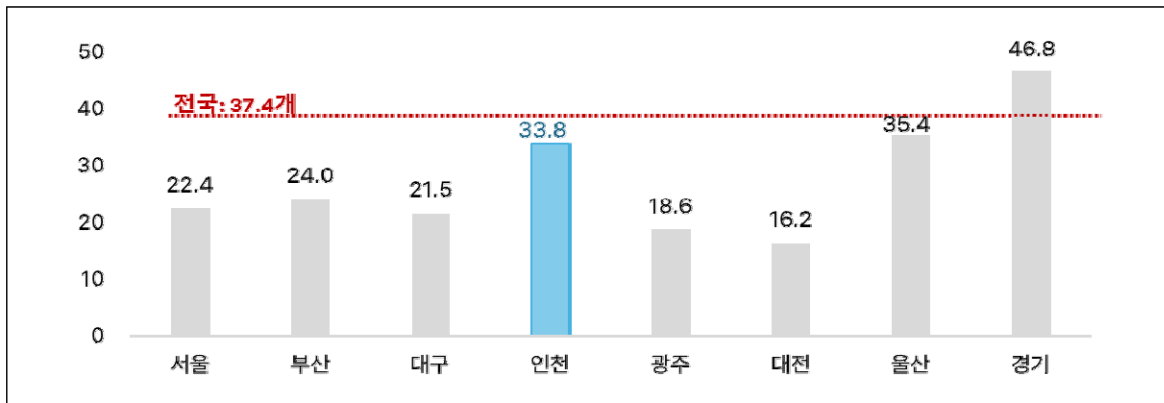
3. 청년 노동시장 미스매치

1) 구인·구직

- 2023년 기준 인천시의 전체 구인 건수와 청년 구직자 수를 비교하면, 100명당 구인 건수는 33.8건으로 파악됨.
- 인천시 내 구인 건수 중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추릴 경우,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 100명당 일자리 수는 9.6개로 감소함.

[그림 2-9] 청년 구직자 대비 구인 건수(전체 구인 건수 대비, 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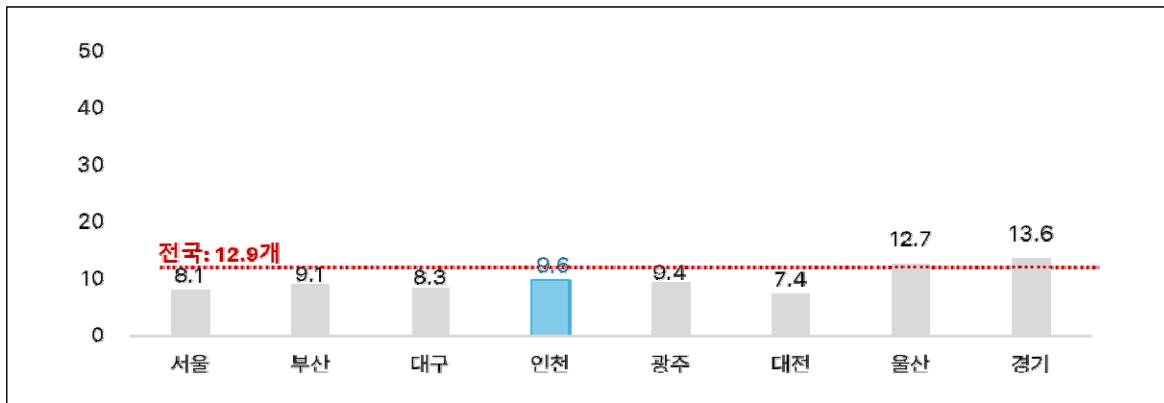
(단위: 100명당 건)



출처: 워크넷 유효 구인·유효 구직 데이터(연구자 재구성)

[그림 2-10] 청년 구직자 대비 구인 건수(청년층 유효 구인 건수 대비, 2023년 기준)

(단위: 100명당 건)



출처: 워크넷 유효 구인·유효 구직 데이터(연구자 재구성)

- 또한 직종별로 청년층 구인-구직 현황을 살펴보면, 구직을 희망하는 직종과 구인 직종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종일수록 구직자당 구인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인천시 청년층은 경영·행정·사무직의 취업 희망 비중이 가장 높으며, 예술디자인·방송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보건·의료직 등이 그 뒤를 이음.
- 반면, 구인 건수가 높은 직종은 각종 생산직과 단순직, 운전·운송직 등에 집중됨.

[표 2-14] 인천시 청년 구직자 희망 직종 및 구직자 대비 구인 건수 상위 직종(2023년 기준) (단위: %, 100명당 건)

구분	구직 건수 비중	구분	구직 대비 구인 건수
경영·행정·사무직	28.0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50.7
예술·디자인·방송직	11.1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45.4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7.9	제조 단순직	37.7
보건·의료직	5.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32.0
음식 서비스직	4.9	운전·운송직	26.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9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3.1
영업·판매직	3.7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0.6
사회복지·종교직	3.7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9.4
미용·예식 서비스직	3.6	식품가공·생산직	16.9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2.9	섬유·의복 생산직	15.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14.7
교육직	2.2	음식 서비스직	13.5
건설·채굴직	2.2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3.1
운전·운송직	2.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9
관리직(임원·부서장)	1.9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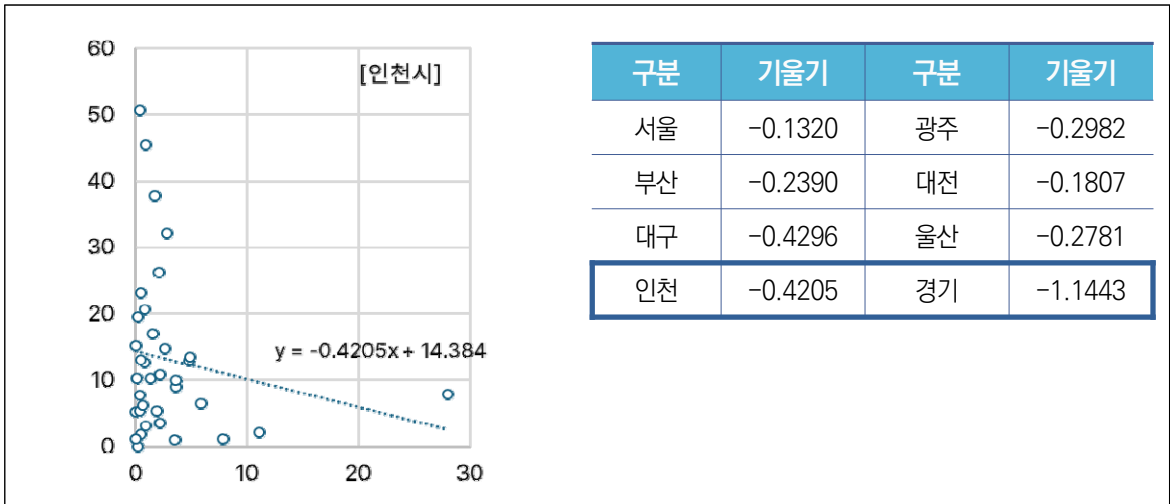
출처: 워크넷 유효 구직 데이터(연구자 재구성)

* 인천시 청년층의 구직건수 비중 및 구직 대비 구인 건수가 높은 상위 업종을 추려서 위의 표에 제시하였음.

- 인천시 청년층의 직종별 구직 건수 비중과 구인-구직 비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정 직종에 대한 구직 비중이 1%p 상승할 때, 해당 업종의 청년 구직자 100명당 구인 건수는 0.42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광역시 중 대구 다음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서울시 대비 약 3배에 달함.

[그림 2-11] 청년 구직자 희망 직종과 구인 건수의 관계(2023년 기준) (단위: %, 100명당 구인 건수)



출처: 워크넷 유효 구직 데이터(연구자 재구성)

* 가로축은 직종별 구직 비중을, 세로축은 청년 구직자 100명당 구인 건수를 나타냄.

2) 청년 취업자 미스매치

- 인천 청년 취업자의 전공 불일치와 학력 및 기술 과잉 미스매치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에서의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2015년 16.2%에서 2023년 28.5%로 지난 8년간 12.3%p 상승하였음.

[표 2-15] 인천광역시 청년 취업자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

(단위: %)

구분		2015년	2020년	2023년
전공	일치	83.8	73.4	71.5
	불일치	16.2	26.6	28.5
학력	적정	81.1	77.6	83.2
	부족	11.6	10.2	3.2
	과잉	7.4	12.2	13.7
기술	적정	79.7	81.3	83.4
	부족	12.0	6.5	2.4
	과잉	8.3	12.2	14.1
사례 수		433	353	410

출처: 황광훈(2023); 청년 패널(YP2021) 3차년도 데이터

* 주관적 미스매치는 황광훈(2023)에 기반하여 도출하였으며, 2015년과 2020년은 해당 논문의 수치를 활용했고, 2023년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였음.

* 20~29세 청년 기준

* 청년패널 조사는 주로 매년 하반기(9~12월)에 실사가 진행되고 조사기준년의 익년 2월에 공표됨

- 전국적으로도 인천시의 전공 불일치율과 학력 및 기술 과잉 비중은 높은 편
- 특히, 일자리를 일정 수준 공유하는 수도권 타 지자체 대비 미스매치 수준이 높음.
- 이는 관내 고난도·고속런 일자리가 부족함과 동시에 인천시 청년의 하향 취업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함.

[표 2-16] 지역별 청년 취업자의 주관적 일자리 미스매치(2023년 기준)

(단위: %)

구분	학력 미스매치			기술 미스매치			전공 불일치
	과잉	부족	과잉	부족			
서울	20.2	11.0	9.2	19.4	10.6	8.8	13.8
인천	16.8	13.7	3.2	16.6	14.1	2.4	28.5
경기	16.8	9.2	7.6	15.6	8.1	7.5	13.5

출처: 청년 패널(YP2021) 3차년도 데이터

* 20~29세 청년 기준

4. 청년 직업훈련 수급 현황

○ 2023년 기준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¹⁾ 신규 발급 건수 중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중은 6.7%인 반면, 인천 내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은 전체의 5.2%이며, 근로자 훈련 실시 인원 비중은 3% 수준임.

- 이는 전체 직업훈련 수요 중 6.7%가 인천 내에서 발생하지만, 실제 훈련의 일부는 인천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17] 지역별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2023년 기준) [표 2-18] 지역별 실업자 훈련 현황(2023년 기준)

신규발급자 시도	발급 건수	비중(%)	훈련기관 시도	인원수	비중(%)
서울	111,909	22.7	서울	144,623	44.7
인천	33,088	6.7	인천	16,758	5.2
경기	140,817	28.6	경기	49,265	15.2

자료: 고용노동데이터 분석시스템

* 해당 자료는 2023년 기준이며, 표에서 제시한 발급 건수 및 훈련 실시 인원수는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

[표 2-19] 지역별 근로자 훈련 실시 인원수 및 비중(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서울	88,061	54.7	3,400	58.4
인천	5,493	3.4	228	3.9
경기	25,528	15.9	923	15.8

자료: 고용노동데이터 분석시스템

* 해당 자료는 2023년 기준이며, 표에서 제시한 발급 건수 및 훈련 실시 인원수는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

○ 청년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 비중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과 ‘경영·행정·사무직’, ‘예술·디자인·방송직’ 등의 비중이 높음

- 전국적으로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 대해 가장 많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1.7%에 그침
- 반면, 인천 내 훈련 비중이 높은 직종은 대면 서비스직이나 생산직, 운송직 등에 몰려 있음

1)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평생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카드로,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 300만 원,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5년임. 만 15세 이상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기관(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에서 사용 가능함.

[표 2-20] 직종별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 비중(2023년 기준)

(단위: %)

구분	직종별 훈련 인원 비중	직종별 훈련 인원의 지역별 비중		
		서울	인천	경기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5	(77.9)	(1.7)	(5.7)
경영·행정·사무직	18.9	(31.7)	(5.4)	(19.5)
예술·디자인·방송직	10.4	(54.1)	(5.1)	(15.7)
음식 서비스직	9.9	(24.6)	(7.8)	(20.5)
미용·예식 서비스직	5.3	(21.4)	(8.6)	(18.8)
식품가공·생산직	5.2	(24.9)	(5.4)	(21.7)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7	(53.0)	(4.0)	(9.6)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3.0	(24.9)	(7.9)	(15.2)
보건·의료직	2.5	(14.9)	(6.0)	(24.5)
건설·채굴직	2.5	(17.9)	(6.3)	(28.8)
운전·운송직	2.2	(6.2)	(10.8)	(22.1)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9	(36.1)	(8.8)	(20.2)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8	(46.4)	(7.7)	(17.0)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1.8	(16.1)	(6.4)	(26.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4	(26.5)	(11.3)	(13.7)
법률직	1.2	(92.7)	(1.7)	(2.3)
∴	∴	∴	∴	∴

자료: 고용노동데이터 분석시스템 직업훈련 데이터

* 해당 자료는 2023년 기준이며, 표에서 제시한 발급 건수 및 훈련 실시 인원수는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

03 청년일자리 정책 동향 및 수행 체계

1. 중앙정부 청년정책 및 수행 체계

1) 2025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수립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음.
-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5개 핵심 분야의 총 339개 사업에 대해 2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핵심 분야는 ①일자리와 ②주거, ③교육, ④생활·복지·문화, ⑤참여·권리로 구성

[표 3-1] 2025년 중앙정부 청년정책 시행계획

(단위: 개, 억 원, %)

분야	과제 수	예산	
		금액	(비중)
일자리	113	65,261	(23.1)
주거	27	11,699	(39.2)
교육	112	82,253	(29.1)
생활복지문화	41	22,431	(7.9)
참여권리	46	1,635	(0.6)
합계	339	282,279	(100.0)

자료(출처) : 관계부처합동. (2025.4.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표 3-2] 2025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목표

분야	추진 목표	사업 추진 방향성
일자리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 첨단·신산업 분야 훈련 강화 •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강화·확충 • 공정채용 기반 확립 •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주거	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전·월세 거주 및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거취약 취약 청년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역량 강화 • 핵심분야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 산업수요형 교육 강화
생활·복지·문화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개선 및 강화 • 취약청년 및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 문화생활 참여 기회 제공
참여·권리	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정책 소통체계 개선 • 해외교류 지원 확대

자료(출처) : 관계부처합동. (2025.4.2.).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2) 중앙정부 청년정책 수행 체계 현황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수행 체계는 각 부처에서 사업을 기획·추진하되,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함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주도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제출 내용을 분석·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한 최상위 심의·조정 기구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한 청년정책과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표 3-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부서별 담당 업무

담당 업무	
청년정책 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및 평가·보완 •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 청년정책 유공포상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협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및 현안 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청년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전담연구기관 조성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 •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청년인재 발굴 및 DB(Data Base)관리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홍보
청년정책 협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 교류 협력 • 청년정책 성과관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점검·평가 • 청년 및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거버넌스 교육 등 역량 강화

출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s://www.opm.go.kr/>)

-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제출한 35개 중앙부처 기관 중 청년정책을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경우는 7개 수준에 그쳐 제한적

[표 3-4] 청년정책 수행 부처의 담당부서 여부 및 청년정책 수

부처	담당부서	청년정책					
		계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관리
문화체육관광부	-	39	10		12	16	1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	38	7	22	6	1	2
교육부	-	38	2	2	28	1	5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31	25		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1	7		24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24	18		5		1
농림축산식품부	-	15	7	1	6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13	1				12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8				8	
성평등가족부	-	8	3		1	4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7	1	2		4	
산업통상자원부	-	7	3		4		
외교부	-	7					7
환경부	-	7	3		2		2
산림청	-	6	3		2		1
식품의약품안전처	-	6			5	1	
해양수산부	-	5	2		3		
인사혁신처	-	5	4				1
병무청	-	4	2		1	1	
행정안전부	-	4	1		1		2
국가보훈부	-	4	2				2
농촌진흥청	-	4	2		1		1
국민권익위원회	-	4	1			1	2
국방부	-	3	1		1	1	
지식재산처	-	3	1		2		
국가유산청	-	3	2				1
법무부	-	3	1		2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3	1			2	
재외동포청	-	2					2
통일부	-	2	1				1
방위사업청	-	1	1				
조달청	-	1	1				
방송통신위원회	-	1			1		
공정거래위원회	-	1					1
국가데이터처	-	1					1

출처: 각 부처 홈페이지,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

2.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수행 체계

1)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수행 체계

- 「청년기본법」은 광역지자체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9조는 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함.
- 광역지자체들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필요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표 3-5] 특·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비교

지역	조례명	청년 연령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청년 의견수렴 기구 설치 관련 조항	청년 지원기관 설치 의무화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19~39세	○	X	X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	X	X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18~39세	○	○	X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9~39세	○	○	X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X	○	○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19~39세	○	○	○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9~39세	○	○	X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광역지자체는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담당 조직을 두고 있음.

[표 3-6] 특·광역시 청년정책 담당조직 현황

지역	청년정책 담당 조직
서울	미래청년기획관(청년정책담당관 내 청년정책팀, 청년참여팀, 청년도약팀, 청년협력팀; 청년사업담당관 내 청년활력팀, 청년공간팀, 청년생활지원팀, 청년금융팀)
부산	청년정책과(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생활팀, 청년문화팀, 청년활동팀)
인천	청년정책담당관(청년정책담당, 청년지원담당, 청년일자리담당)
대구	청년정책과(청년정책팀, 청년활동팀, 청년진로팀, 청년생활팀)
대전	청년정책과(청년정책팀, 청년활동팀, 청년지원팀)
광주	청년정책과(청년정책팀, 청년도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울산	청년정책팀

출처: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 지자체의 청년지원센터는 조례 등을 바탕으로 자체 운영되었으나, 최근 중앙의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거점 광역청년지원센터가 지정되었음.
- 청년센터는 각 광역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현재까지 설립·운영되어 있음.
- 청년정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분야별 상담, ②커뮤니티 활동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③청년 활동공간 제공 및 네트워킹 활동 지원

[표 3-7] 특·광역시 청년지원센터 현황

지역		지역 청년지원센터 현황
서울	광역 (3개)	서울광역청년센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창업꿈터
	기초 (29개)	서울청년센터(강동, 강북, 강서, 관악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광진, 금천 청춘빌딩, 노원,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은평, 성북), 강북청년창업마루, 관악청년청,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름, 노원 청년일살센터,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노원청년공유센터 청년공간, 노원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 서초청년센터, 성동구청년일다방, 성동구청년지원센터, 용산 청년지음,
부산	광역 (7개)	부산청년센터 ,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청년활동공간 공간숲, 청년두드림센터, 청년창조발전소 디자인스프링, 부산청년리빙랩 핑두, 청년작당소,
	기초 (12개)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JOB(남구), 청년아트스테이션(북구), 부산진구 동네 청년공간 청년마루, 부산진구청년플랫폼 청년 FLEX, 무튼304(서구), 구포청년센터 감동, 사하 청년창업지원센터,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청년희망플랫폼 다이룸(영도구), 중구 청년센터 청년마루,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동래구 청년어울림센터
인천	광역 (1개)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인천
	기초 (9개)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계양청년마당, 동구청년21, 부평, 강화), 인천청년공간 남동구 청년꿈터, 인천청년공간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인천 청년공간 청년센터 서구1939, 연수청년자리, 인천 중구 청년내일기지
대구	광역 (4개)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다운나그래, 행복그래, 활동그래, 공감그래),
	기초 (8개)	달서구청년센터, 달성청년혁신센터, 동구청년센터 the꿈, 수성구청년센터, 중구청년지원센터 잇플,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중구), 대구 남구청년센터, 청년공유문화금고(군위군)
대전	광역 (4개)	대전청년내일재단 , 청춘나들목, 청춘 두두두, 청춘 너나들이
	기초 (6개)	청년벙커(대덕구), 동구 청년공간 동구동락, 청춘스럽(서구), 청춘정거장(서구), 청춘포털(서구), 청년모아(중구)
광주	광역 (2개)	광주청년센터 , 토닥토닥 3센터(광주청년센터)
	기초 (6개)	청청플랫폼(광산구), 청년와락(남구), 광주 북구청년센터 청춘이랑, 광주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서구 START UP center, 청춘발산공작소(서구)
울산	광역 (1개)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기초 (7개)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 울산동구청년센터, 청년스태이지ON(동구), 울산 북구 청년공간 와락(樂),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디딤터(중구), 울주군청년센터

출처: 중앙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nysc.or.kr/>)

* 광역청년센터(지역거점)은 볼드체로 표기하였음

- 최근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정책 관련 조사업무 및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정됨.²⁾
 -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역 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센터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 센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매뉴얼 개발과 컨설팅, 사업지원 등을 수행함.
- 정부는 이번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의 도입을 통해 지역별 서비스의 수준을 표준화하고, 중앙-지역간 유기적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표 3-8] 지역 청년지원센터 도입에 따른 변화사항

	현황(as-is)	변화(to be)
운영주체	각 시·도 운영 청년센터	지역청년지원센터
법적근거	각 시·도별 청년기본조례 등	청년기본법('23.9.22. 개정안 시행)
기능·역할	지자체별로 상이한 내용의 청년사업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 발생, 분산된 정책정보 제공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지역간 유기적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표준화, 종합 청년 정책 제공
주요사업	청년 활동 공간제공 서비스 중심 지역별 자체 청년 교류사업 실시 일자리·복지 등 지자체별 위탁사업 수행	종합적 청년정책의 안내, 홍보, 상담 지역 청년단체, 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지역의 청년 관련 조사 현황 파악 그 밖에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출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24.4.2.) "청년정책 상담하고 안내,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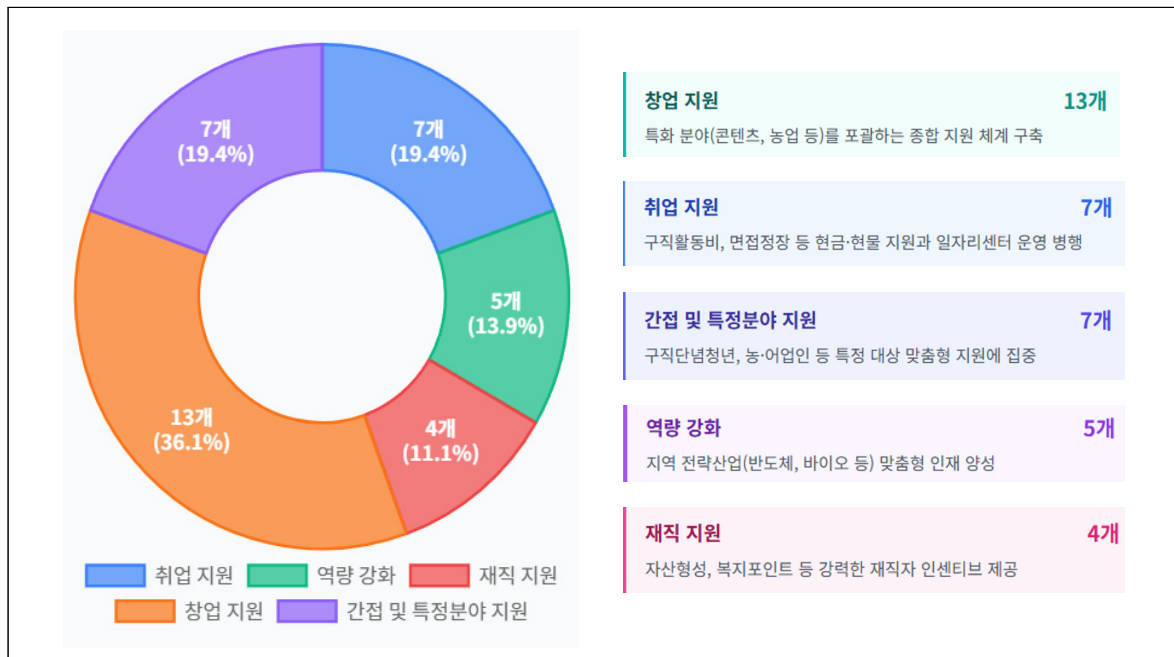
2) [표 3-8]에 제시된 센터 중 볼드체로 표기된 기관이 지역거점 센터를 의미

04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진단

1. 인천광역시 정책 현황

- 인천광역시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 있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제1차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2021년에 작성되었으며, 일자리와 관련된 전략은 ‘취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일자리 분야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발굴, 구직단념 청년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
 - 창업 분야는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청년 창업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
- 2025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은 36개 사업으로 구성
 -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은 창업 지원 분야 13개, 취업 지원 7개, 역량 강화 5개, 재직 지원 4개, 간접 및 특정 분야 지원 7개로 구분 가능

[그림 4-1] 인천광역시 주관 정책 현황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창업벤처과, 경제정책과 및 관련 부서에서 시행
 -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재직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
 - 창업과 관련된 사항은 창업벤처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정책과는 취업박람회 및 인프라 운영 담당
 - 이외에 반도체, 바이오, 항공 등 특정 산업 관련 인력개발 사업, 문화, 체육, 농축산과 관련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각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여 운영

[표 4-1] 인천광역시 부서별 주관 정책 현황

주관 부서	취업 지원	역량 강화	재직 지원	창업 지원	간접 및 특정 분야 지원
청년정책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 나래 •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 지역전략산업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약기지 •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인천 농어촌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우수기업 환경개선 • 청년성장프로젝트 • 드림 For 청년통장 •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의무고용할당제 • 청년도전지원사업
창업벤처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벤처기업 육성 • 청년창업 챌린지 • 해외진출기지 지원 • 세대융합 창업 지원 • 대학 주도형 창업 플랫폼 	-
경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설명회 • 잡스인천 운영 • 일자리센터 운영 	-	-	-	-
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
기타부서 (교육·복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반도체특성화대학 • (교육) 화이트바이오 인력양성 • (교육) 항공정비 인력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회적) 환경 소셜벤처 • (경제자유구역청) 스타트업파크 • (문화) 콘텐츠코리아랩 • (체육) 스포츠산업 창업 • (인구) 스마트팜 조성 • (농축산) 농업인 스타트업 	-
합계	7개	6개	4개	13개	6개

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05 인천광역시 청년 채용기업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 인천광역시 전체 산업 및 전략산업 부문의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천시 청년 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응답 기업체는 300개를 목표로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인천시 전략산업인 로봇,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항공 부문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진행
 - 설문 문항은 아래 표와 같이 사업체의 일반사항, 청년 고용 현황, 청년 채용과 관련 인식, 정책 수요로 구성

[표 5-1] 조사 항목

구분	비고
사업체 일반사항	• 사업체명, 설립 연도, 상세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체 유형, 본사 소재지, 지정 여부 •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 해외수출 비중 •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체 청년 고용 현황	•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수
	• 1년간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
	• 1년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 수
	• 향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규모
청년 채용 관련 인식 현황	• 청년 채용의 어려움
	• 청년 채용 시 가장 중요 시 하는 사항
	• 청년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퇴사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
	• 신규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알릴 수 있는 사항
정책 수요 현황	• 청년층에게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도입 계획
	• 선호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형태
	• 인천시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
	• 청년 채용 관련 인천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경로
	•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 인천시 청년 고용 일자리 정책 만족 정도

○ 설문조사에는 모두 300개의 사업체가 참여하였고, 전략산업 120개와 그 외 사업체 180개가 참여

- 기업 규모에서는 30인 미만 기업이 55.7%, 30인 이상~100인 미만이 24.0%, 100인 이상~300인 미만이 17%, 300인 이상이 3.3%를 차지

[표 5-2] 응답 사업체 특성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00	100.0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120	40.0
	로봇	29	9.7
	미래차	30	10.0
	바이오	29	9.7
	반도체	29	9.7
	항공	3	1.0
	비전략 산업	180	60.0
사업체 유형	본사	278	92.7
	지사·지점, 공장, 영업소·출장소	22	7.3
기업 규모	10~29인	167	55.7
	30~99인	72	24.0
	100~299인	51	17.0
	300인 이상	10	3.3
매출액 규모	10억 원 미만	13	4.3
	10억 원~50억 원 미만	115	38.3
	50억 원~100억 원 미만	40	13.3
	100억 원~500억 원 미만	79	26.3
	500억 원~1,000억 원 미만	27	9.0
	1,000억 원 이상	26	8.7
해외수출 비중	없음	221	73.7
	20% 미만	36	12.0
	20%~40% 미만	20	6.7
	40%~60% 미만	11	3.7
	60%~80% 미만	4	1.3
	80% 이상	8	2.7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부설연구소 운영	149	49.7
	연구부서 운영	59	19.7
	연구인력 운영	7	2.3
	관련 조직·인력 없음	85	28.3

2. 분석 결과

1) 청년 채용·퇴직 현황 및 향후 계획

- (신규 채용) 지난 1년간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49.3%로 나타났으며, 청년 근로자 채용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0.7%로 나타남
- 전략산업 사업체는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55.8%로 비전략산업 사업체(45.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략산업 분야별로는 반도체 산업이 69.0%로 가장 높고, 미래차 산업(66.7%), 바이오 산업(58.6%) 등의 순임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9인 규모는 22.2%, 30~99인 규모에서는 77.8%, 100~299인 규모에서는 88.2%,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100.0%로 나타남

[표 5-3]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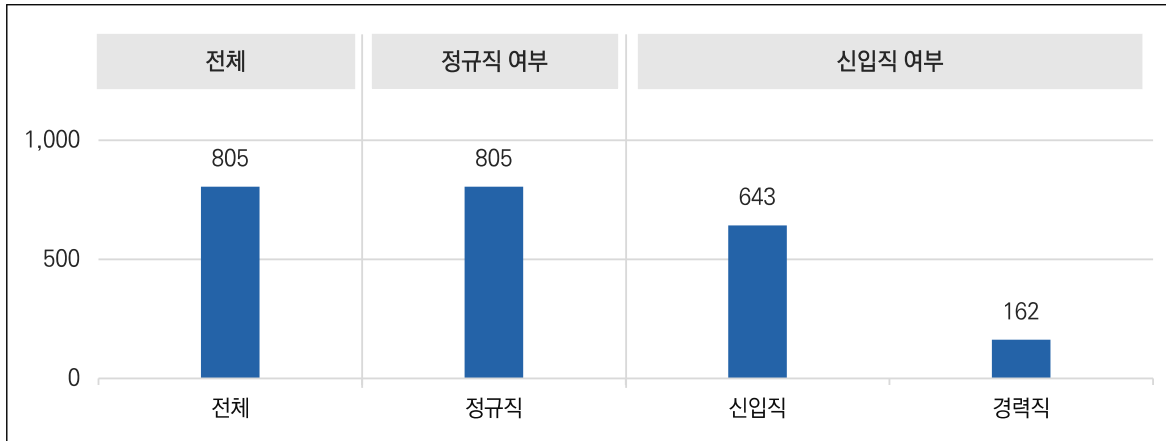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0)	49.3	50.7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120)	55.8	44.2
	로봇 산업	(29)	31.0	69.0
	미래차 산업	(30)	66.7	33.3
	바이오 산업	(29)	58.6	41.4
	반도체 산업	(29)	69.0	31.0
	항공 산업	(3)	33.3	66.7
	비전략산업	(180)	45.0	55.0
기업 규모	10~29인	(167)	22.2	77.8
	30~99인	(72)	77.8	22.2
	100~299인	(51)	88.2	11.8
	300인 이상	(10)	100.0	0.0

- 지난 1년간 신규 채용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는 805명이며, 모두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중 신입직은 643명(79.9%)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직은 162명(20.1%)으로 경력직의 비중이 작지 않음

[그림 5-1] 지난 1년 간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

(단위: 명)



- 지난 1년 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58.3%로 나타났으며, 퇴사한 청년 근로자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1.7%로 나타남
- 전략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략산업 사업체는 지난 1년 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60.8%, 비전략산업 사업체는 56.7%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9인 규모에서는 35.9%, 30~99인 규모에서는 83.3%, 100~299인 규모에서는 88.2%,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100.0%로 나타남

[표 5-4] 지난 1년 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 여부 (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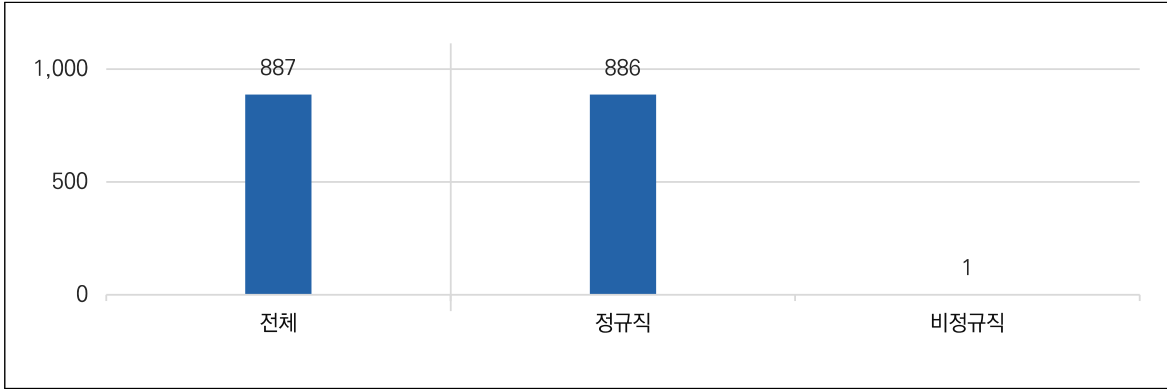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0)	58.3	41.7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120)	60.8	39.2
	로봇 산업	(29)	41.4	58.6
	미래차 산업	(30)	63.3	36.7
	바이오 산업	(29)	65.5	34.5
	반도체 산업	(29)	75.9	24.1
	항공 산업	(3)	33.3	66.7
비전략산업	(180)	56.7	43.3	
기업 규모	10~29인	(167)	35.9	64.1
	30~99인	(72)	83.3	16.7
	100~299인	(51)	88.2	11.8
	300인 이상	(10)	100.0	0.0

- (퇴직 청년) 응답한 사업체의 지난 1년 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 수는 전체 887명으로 나타남
 - 퇴사한 청년 근로자 중 정규직은 886명(99.9%)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1명(0.1%)으로 나타남

[그림 5-2] 지난 1년 간 퇴사한 청년 근로자 수

(단위: 명)



- (향후 채용)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의 채용 계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0.7%이며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59.3%로 나타남
 - 전략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략산업 사업체는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8.3%, 비전략산업 사업체는 42.2%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9인 규모에서는 18.0%, 30~99인 규모에서는 59.7%, 100~299인 규모에서는 76.5%,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100.0%로 나타남

[표 5-5]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계획 여부 (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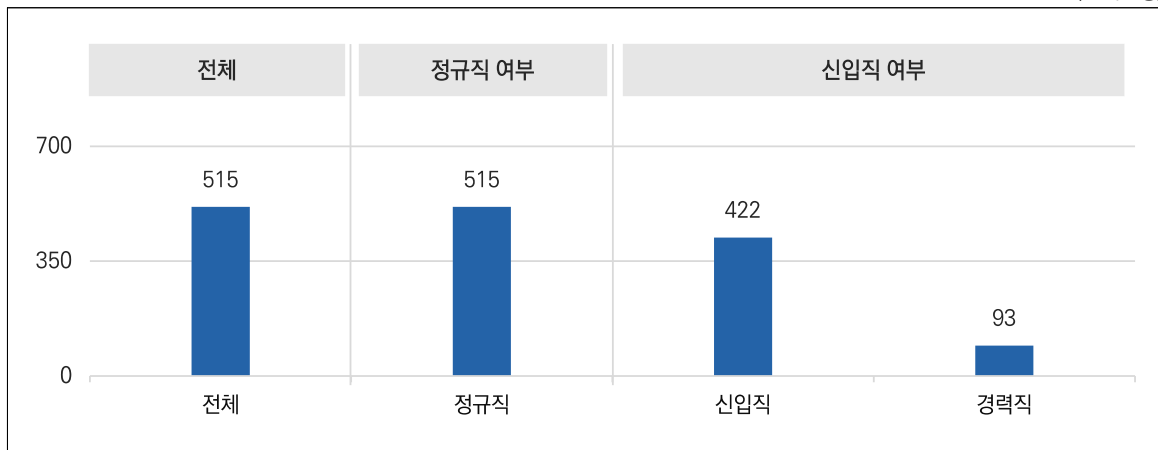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신규 청년 채용 계획이 있다	신규 청년 채용 계획이 없다
전체		(300)	40.7	59.3
전략 산업 구분	전략산업	(120)	38.3	61.7
	로봇 산업	(29)	17.2	82.8
	미래차 산업	(30)	40.0	60.0
	바이오 산업	(29)	41.4	58.6
	반도체 산업	(29)	55.2	44.8
	항공 산업	(3)	33.3	66.7
비전략산업		(180)	42.2	57.8
기업 규모	10~29인	(167)	18.0	82.0
	30~99인	(72)	59.7	40.3
	100~299인	(51)	76.5	23.5
	300인 이상	(10)	100.0	0.0

-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규모 중 정규직은 515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없음
 -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규모 중 신입직은 422명(81.9%)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직은 93명(18.1%)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략산업 사업체의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규모는 240명, 비전략산업 사업체는 275명으로 나타남

[그림 5-3] 향후 1년 간 신규 청년 근로자 채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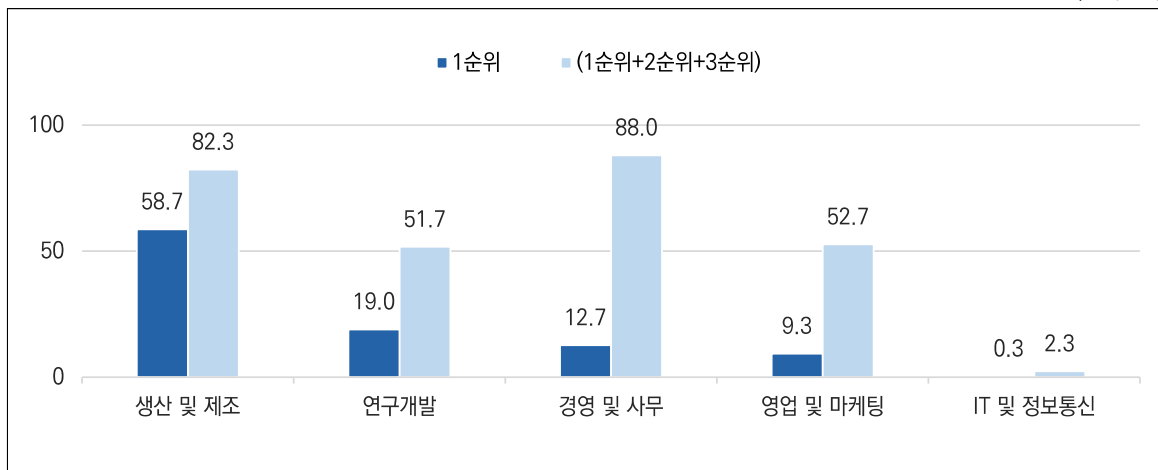
(단위: 명)



- (채용희망 직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희망하는 직무는 1순위 기준 ‘생산 및 제조’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19.0%), ‘경영 및 사무’(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1순위+2순위+3순위) 기준으로는 ‘경영 및 사무’가 8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산 및 제조’(82.3%), ‘영업 및 마케팅’(5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4]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희망하는 직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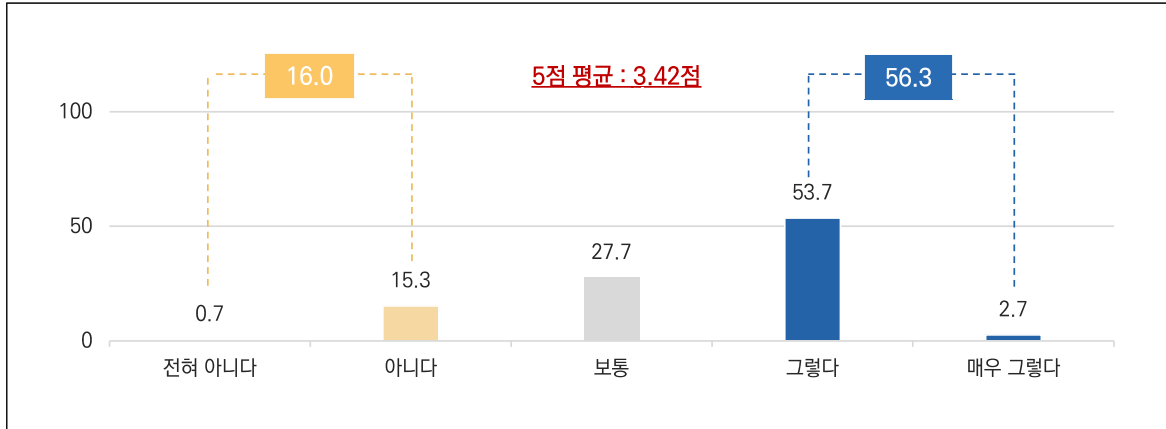


2) 청년 채용에 대한 사업체 인식

- (채용 어려움) 청년 채용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에서 평균 3.42점으로 나타남
- 청년 채용의 어려움 정도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2.7% + 그렇다 : 53.7%)가 56.3%로 ‘아니다’(전혀 아니다 : 0.7% + 아니다 : 15.3%)(16.0%)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그림 5-5] 청년 채용의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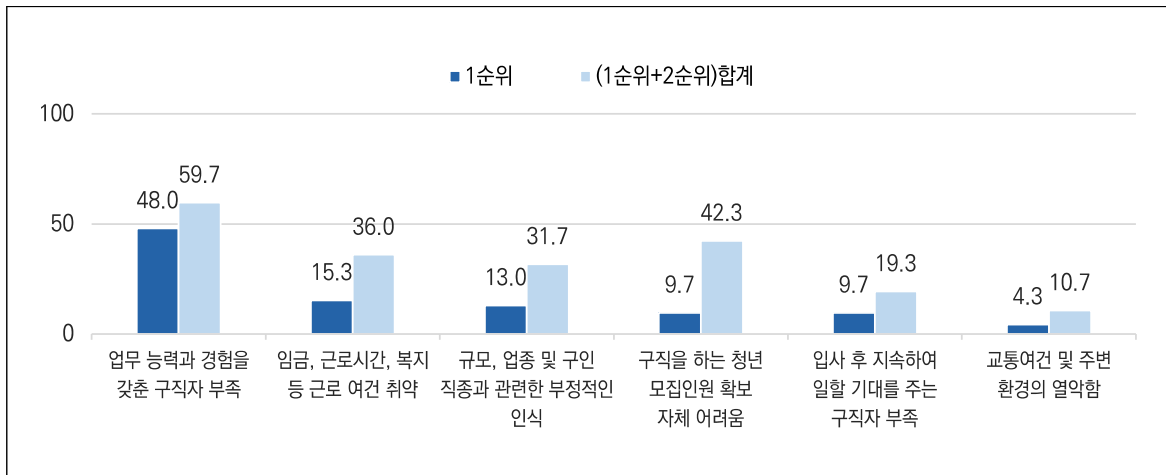
(단위: %, 점)



- 청년 채용에 있어 주된 어려움으로는 1순위 기준 ‘업무 능력과 경험을 갖춘 구직자 부족’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 여건 취약’(15.3%), ‘규모, 업종 및 구인 직종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2순위)합계 기준으로도 ‘업무 능력과 경험을 갖춘 구직자 부족’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직을 하는 청년 모집인원 확보 자체 어려움’(42.3%),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 여건 취약’(3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6] 청년 채용에 있어 주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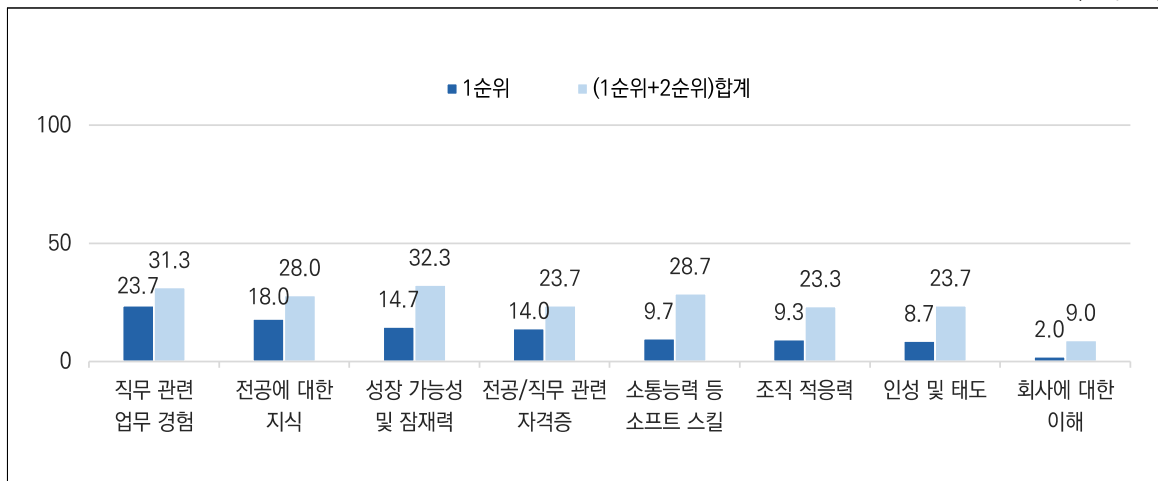
(단위: %)



- (채용시 고려사항) 청년 채용 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으로는 1순위 기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공에 대한 지식’(18.0%),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2순위)합계 기준으로는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32.3%), ‘직무 관련 업무 경험’(31.3%), ‘소통능력 등 소프트 스킬’(28.7%), 전공에 대한 지식(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 분야별로는 로봇 산업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31.0%),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27.6%) 등을 중요시하고, 미래차 산업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26.7%), 전공/직무 관련 자격증(26.7%), 바이오 산업은 전공에 대한 지식(31.0%), 직무 관련 업무 경험(27.6%)의 순임. 반도체 산업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27.6%),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20.7%), 전공/직무 관련 자격증(20.7%)을 중요시하고, 항공 산업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66.7%)과 조직 적응력(33.3%)을 중요시 함

[그림 5-7] 청년 채용 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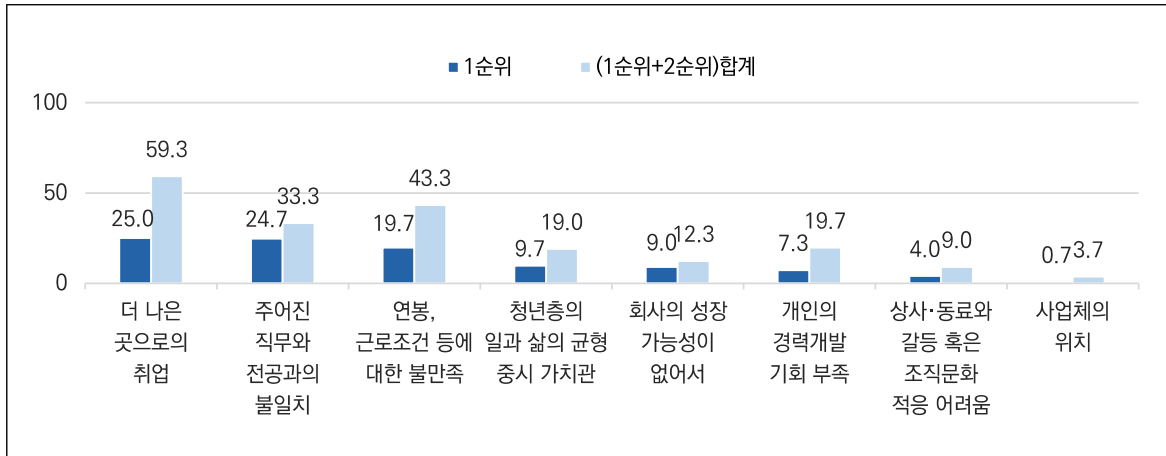
(단위: %)



- (회사 고려 사유) 청년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퇴사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 1순위 기준으로는 ‘더 나은 곳으로의 취업’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어진 직무와 전공과의 불일치’(24.7%), ‘연봉,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만족’(1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2순위)합계 기준으로도 ‘더 나은 곳으로의 취업’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봉,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만족’(43.3%), ‘주어진 직무와 전공과의 불일치’(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8] 청년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퇴사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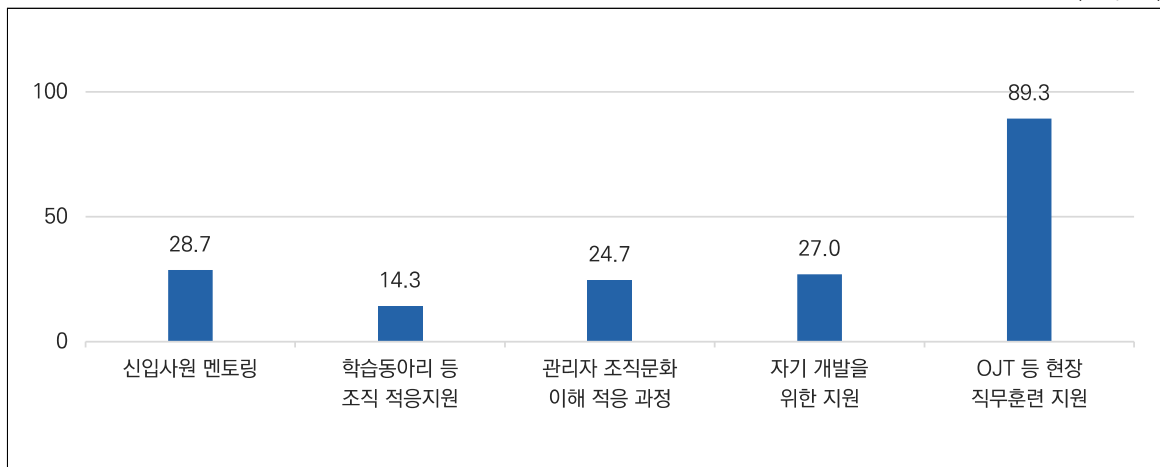
(단위: %)



○ (청년 고용유지 지원) 신규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OJT 등 현장 직무훈련 지원'이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입사원 멘토링'(28.7%),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27.0%), '관리자 조직문화 이해 적응 과정'(24.7%), '학습동아리 등 조직 적응지원'(14.3%) 순임

[그림 5-9] 신규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여부(복수응답)

(단위: %)



○ 청년 고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자 조직문화 이해 적응 과정'의 5점 척도에서 4.30점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학습동아리 등 조직 적응 지원 (4.16점),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 (4.07점), 신입사원 멘토링 (4.02점) 그리고 OJT 등 현장 직무훈련 지원 (3.87점) 순임

[표 5-6] 신입 청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도움 정도
<p>신입사원 멘토링</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프로그램 실시여부 (base: 전체)</p> <p>미실시 71.3 실시 28.7</p> </div> <div style="width: 50%;"> <p>청년 고용 유지 도움 수준 (base: 신입사원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사업체)</p> <p>5점 평균 : 4.02점</p> <p>0.0 0.0 18.6 60.5 20.9</p> <p>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p> </div> </div>
<p>학습동아리 등 조직 적응 지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프로그램 실시여부 (base: 전체)</p> <p>미실시 85.7 실시 14.3</p> </div> <div style="width: 50%;"> <p>청년 고용 유지 도움 수준 (base: 학습동아리 등 조직 적응 지원 프로그램 실시 사업체)</p> <p>5점 평균 : 4.16점</p> <p>0.0 0.0 14.0 55.8 30.2</p> <p>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p> </div> </div>
<p>관리자 조직문화 이해 적응 과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프로그램 실시여부 (base: 전체)</p> <p>미실시 75.3 실시 24.7</p> </div> <div style="width: 50%;"> <p>청년 고용 유지 도움 수준 (base: 관리자 조직문화 이해 적응 과정 프로그램 실시 사업체)</p> <p>5점 평균 : 4.30점</p> <p>0.0 0.0 13.5 43.2 43.2</p> <p>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p> </div> </div>
<p>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프로그램 실시여부 (base: 전체)</p> <p>미실시 73.0 실시 27.0</p> </div> <div style="width: 50%;"> <p>청년 고용 유지 도움 수준 (base: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실시 사업체)</p> <p>5점 평균 : 4.07점</p> <p>0.0 0.0 16.0 60.5 23.5</p> <p>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p> </div> </div>
<p>OJT 등 현장 직무훈련 지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프로그램 실시여부 (base: 전체)</p> <p>미실시 10.7 실시 89.3</p> </div> <div style="width: 50%;"> <p>청년 고용 유지 도움 수준 (base: OJT 등 현장 직무훈련 지원 프로그램 실시 사업체)</p> <p>5점 평균 : 3.87점</p> <p>0.0 0.4 22.8 66.4 10.4</p> <p>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p> </div> </div>

3) 청년 일자리 정책 수요

-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층에게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24.7%로 나타났으며,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는 75.3%로 나타남
 - 전략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략산업 사업체는 청년층에게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 비전략산업 사업체는 26.7%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10~29인 규모에서 6.6%, 30~99인 규모에서 27.8%, 100~299인 규모에서 66.7%, 300인 이상 규모에서 90.0%로 나타남
- 향후 일경험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39.4%), '도입이 필요하다'(2.7%) 순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략산업 사업체는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가 62.8%, 비전략산업 사업체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가 각 51.3%, 69.2%, 82.4%,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7] 청년층에게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향후 도입 여부 의사(전략산업별, 기업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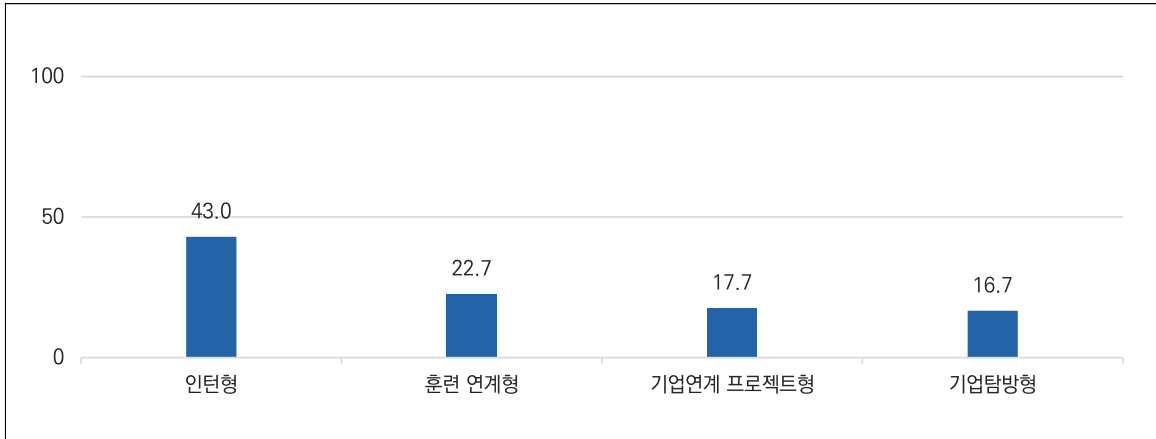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일경험 프로그램 향후 도입 여부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도입이 필요하다	
전체	(300)	24.7	75.3	(226)	39.4	58.0	2.7	
전략산업 구분	전략산업	(120)	21.7	78.3	(94)	36.2	62.8	1.1
	로봇 산업	(29)	6.9	93.1	(27)	51.9	48.1	0.0
	미래차 산업	(30)	23.3	76.7	(23)	34.8	65.2	0.0
	바이오 산업	(29)	20.7	79.3	(23)	26.1	73.9	0.0
	반도체 산업	(29)	37.9	62.1	(18)	33.3	66.7	0.0
	항공 산업	(3)	0.0	100.0	(3)	0.0	66.7	33.3
	비전략산업	(180)	26.7	73.3	(132)	41.7	54.5	3.8
기업 규모	10~29인	(167)	6.6	93.4	(156)	48.1	51.3	0.6
	30~99인	(72)	27.8	72.2	(52)	23.1	69.2	7.7
	100~299인	(51)	66.7	33.3	(17)	11.8	82.4	5.9
	300인 이상	(10)	90.0	10.0	(1)	0.0	100.0	0.0

- 선호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형태를 확인한 결과, ‘인턴형’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훈련 연계형’(22.7%), ‘기업연계 프로젝트형’(17.7%), ‘기업탐방형’(16.7%) 순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략산업 사업체는 ‘인턴형’이 47.5%, 비전략산업 사업체도 ‘인턴형’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10] 선호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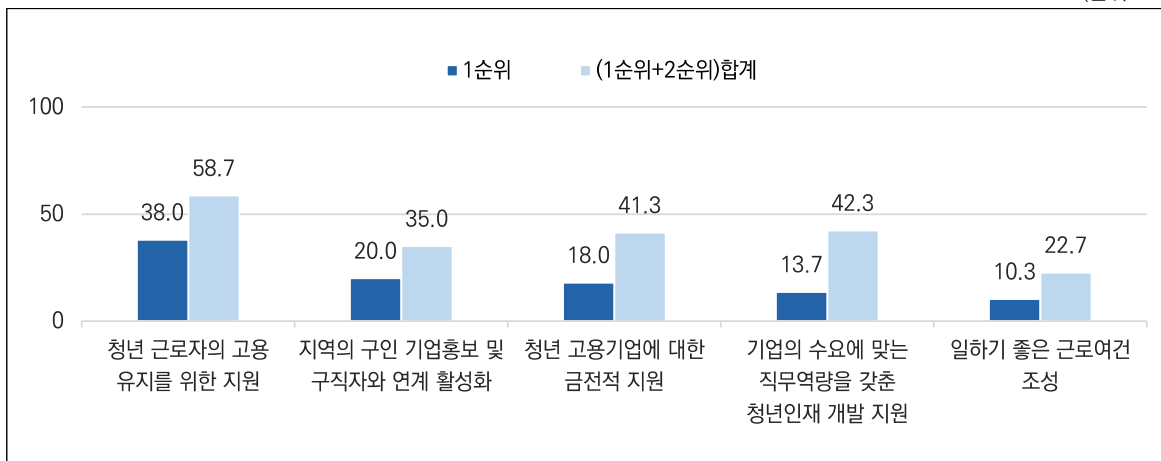
(단위: %)



- (청년 일자리 정책 중요도) 인천시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를 확인한 결과, 1순위 기준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의 구인 기업홍보 및 구직자와 연계 활성화’(20.0%),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2순위)합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직무역량을 갖춘 청년인재 개발 지원’(42.3%),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4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인천시 청년층 고용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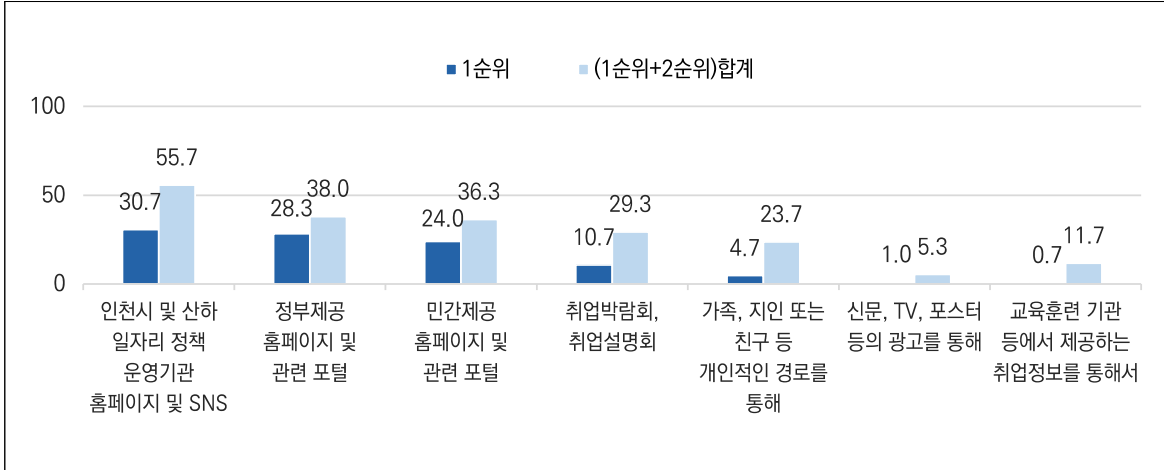
(단위: %)



- (정책 취득경로) 청년채용 관련 인천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경로는 1순위 기준 '인천시 및 산하 일자리 정책 운영기관 홈페이지 및 SNS'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제공 홈페이지 및 관련 포털'(28.3%), '민간제공 홈페이지 및 관련 포털'(2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2] 청년채용 관련 인천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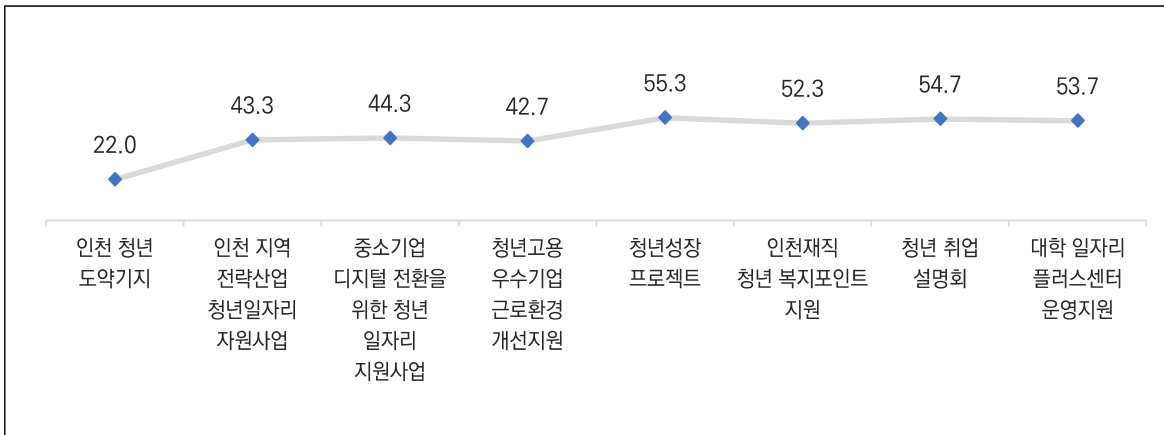


- (정책인지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인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의 인지도는 '청년성장 프로젝트'(55.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년 취업설명회'(54.7%),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53.7%), '인천재직 청년 복지포인트'(52.3%) 순임. 인천 청년도약기지가 22.0%로 가장 낮음

- 전략산업 사업체는 '인천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인지도가 57.5%로 가장 높고, 비전략 산업 사업체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인지도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1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인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인지도_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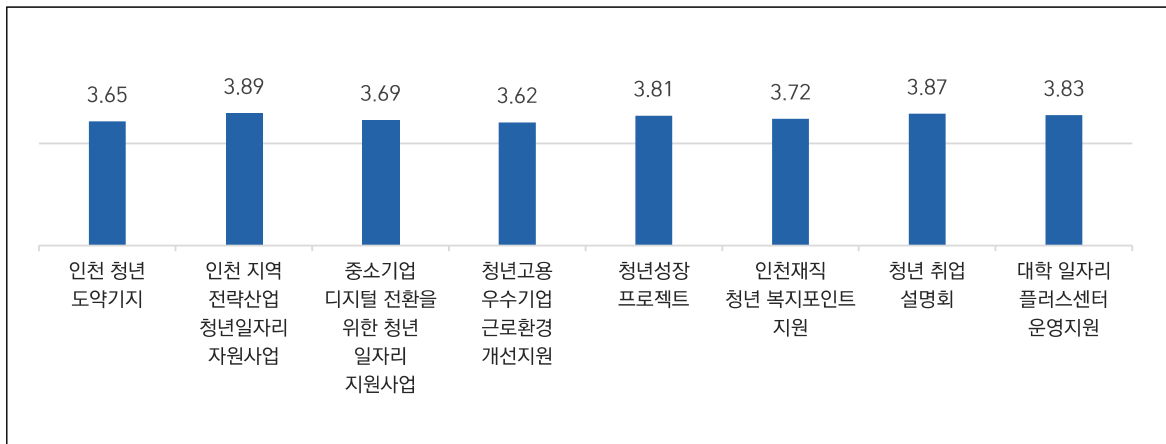
(단위: %)



- (청년 일자리 정책 필요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인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의 필요성은 ‘인천 지역 전략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년 취업 설명회’(3.87점),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3.8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략산업 사업체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이 3.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전략산업 사업체는 ‘인천지역 전략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14]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인천시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필요성 (5점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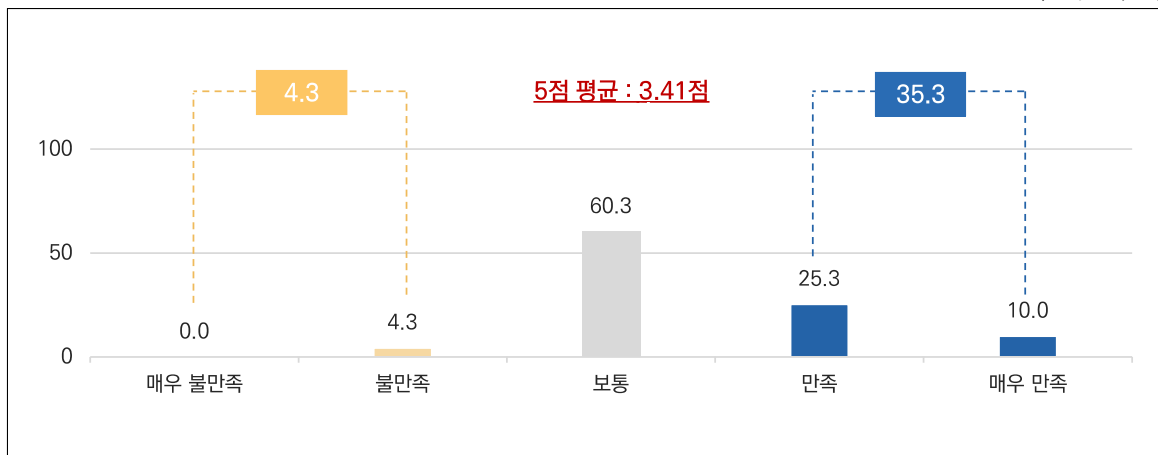
(단위: 점)



- (정책 만족도) 인천시 청년고용 일자리 정책 만족도는 5점 평균 3.41점이며 ‘만족’(매우 만족 : 10.0% + 만족 : 25.3%)이 35.3%로 ‘불만족’(매우 불만족 : 0.0% + 불만족 : 4.3%)(4.3%)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5-15] 인천시 청년고용 일자리 정책 만족도

(단위: %, 점)



3. 주요 시사점

1) 문제점 진단

- 기업의 채용 어려움과 청년 조기 퇴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 문제가 존재함
 - 조기 퇴사는 낮은 처우, 업무 불일치, 기업 대응의 한계 등에 기인

[표 5-8] 문제점 진단

구분		내용
채용 어려움 (현상 진단)	핵심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저변수, 청년 채용에 어려움 호소 • 직무 적합 인재 부족이 최대 난제 • 스펙보다 주도성과 협업 능력 등 정성적인 역량 중시
	근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구직자의 실제 역량과 기업 기대치 간의 간극 • 기업 채용 조건과 청년 선호 일자리 미스매치
↓		
고용 유지 과제 (결과 분석)	조기 퇴사 주요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과 다른 직무(기대 불일치) • 낮은 임금(처우 불만족) • 채용 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부족
	기업 대응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JT 등 직무 교육은 활발하게 진행 • 조직문화 개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은 부족

출처: 연구자 작성

2) 악순환 구조 분석

- ‘직무 미스매치’에서 ‘조기 퇴사’로, 다시 ‘채용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 기업 차원에서 청년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 개발 필요

[표 5-9] 기업 요구 및 정책 제언

구분		내용
기업 요구	직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요구 • 인재 채용 연계 서비스 필요 •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선호
	핵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중심의 발전 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 • 직무 미스매치 해소 정책 필요성 제기 • 인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		
정책 제언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친화 기업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전략산업 특화형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경험을 넘어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 • 지역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유형 신설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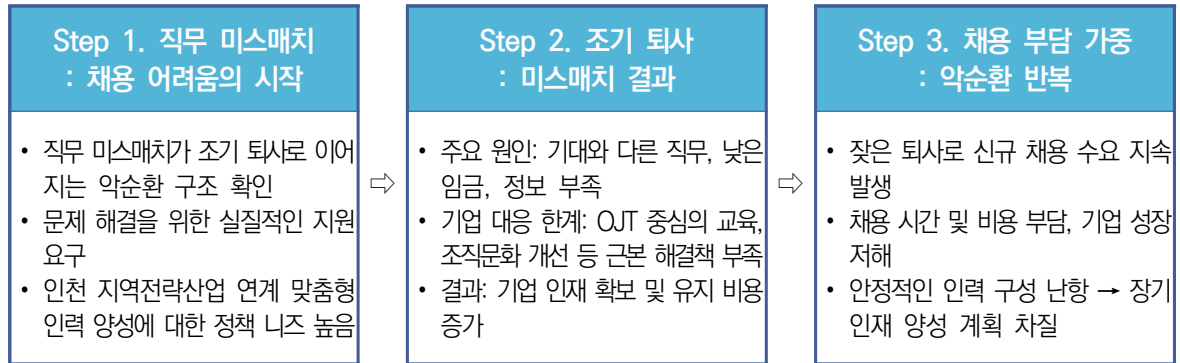
출처: 연구자 작성

3) 해결 방안

◆ 기업 요구와 정책 제언

- 악순환 해결을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요구 증대와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
- 기업 요구와 전문가 제언을 기반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표 5-10] 직무 미스매치에 따른 악순환 구조



출처: 연구자 작성

06 인천 청년 FGI

1. FGI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인천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함
 - 조사방법 :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 본 연구는 FGI를 통해 다음 사항을 도출함.
 - 첫째,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 경험과 체감 효과 파악
 - 둘째, 정책 사각지대 및 참여 장벽 요인 발굴
 - 셋째, 인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인식 확인
 - 넷째, 청년 관점에서의 정책 개선 수요 및 우선순위 도출
- 관내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11명을 선발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FGI를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실제 효과와 사각지대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 여부에 따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 A그룹: 최근 2년 내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보유 청년
 - B그룹: 관련 사업 미참여 청년

[표 6-1] 조사대상 그룹 개요

구분	A그룹 (정책참여자)	B그룹 (정책 미참여자)
대상	인천 청년정책 참여 경험 有	인천 청년정책 참여 경험 無
인원	6명	5명
재직 구분	재직자 3명, 구직자 3명	재직자 1명, 구직자 2명, 프리랜서 2명

1) FGI 주요 조사 항목

- 참여 그룹별로 조사 목표를 달리 설정하여 정책 성과와 사각지대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함.
 - A그룹은 실제 정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와 개선점 도출에 초점을 둠
 - B그룹은 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와 장벽을 파악하여 향후 참여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표 6-2] FGI 주요 조사 항목

구분		내용
공통	청년의 일자리 경험과 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구직 / 재직 / 일자리 관련 주요 애로사항 •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 인지도 및 접근 경로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 강점과 한계 • 향후 정책 우선순위 및 개선 필요 사항
그룹별	정책 참여자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신청 - 참여 - 사후 단계별 만족 / 불만족 요인 • 정책을 통한 성과(취업, 경력 개발, 역량 강화 등) • 개선 필요 사항 및 신규 정책 아이디어
	정책 미참여자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미참여 이유(정보 부족, 자격조건, 절차 등) • 참여 의향을 높일 수 있는 요인(홍보, 설계, 접근성 등)

출처: 연구자 작성

2.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평가

1)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의욕이 저하된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은 청년 공간(서구1939),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함.
- 참여자들은 정서적 지원과 기초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체감함.
 - 고립·은둔 청년, 귀국 청년 등이 사회에 복귀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 형성과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됨
 -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됨
 - 이력서 작성법, 면접 태도, 노동법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현직자 특강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음
- 인천청년도약기지는 직무 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하여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은 현직자 오픈 카톡방 등 비공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업 정보를 접함.
-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취업 연계 성과를 높이 평가함.
 - 직무 교육 후 인턴십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직접적인 취업 성과가 나타남
 - 현직자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전공과 무관한 새로운 직무(인사, 교육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함
 - 동기들과의 교류를 통해 타사 정보 습득 및 업무적 사고 확장에 도움을 받음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취업지원 기관으로, 재학생들이 교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이 장점임.

- 모의 면접, 자소서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실용적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며, 지역 기업과의 추천 채용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재학생들이 교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이 장점이나 인천시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대학 소속이 아니면 프로그램 안내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해 고립 청년의 접근이 어려운 점은 한계로 지적됨.

2)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 토익, JPT, JLPT 등 회당 5~8만 원에 달하는 응시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평가됨.
- 다만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경쟁률이 치열하고, 특정 지역에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면접을 앞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직원이 친절하게 복장을 추천해주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음.
- 그러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이 조기 종료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재직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포인트 사용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30만 원씩 분할 지급되는 포인트를 합산하거나 이월할 수 없고, 초과 금액에 대한 추가 결제가 불가능하여 고가 상품 구매가 어려움.

3.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 기업들이 경력 없는 신입보다 1~2년의 직무 경험을 가진 '중고신입'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신입/경력무관' 공고에도 경력자들이 지원하며, 면접에서는 직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십조차 '인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등 '경험을 쌓기 위한 경험'이 필요한 모순적 상황에 놓임.
- 인천의 일자리는 제조업(남동공단, 주안공단 등)에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업·헬스케어·온라인 MD 등 청년 선호 직무가 부족함.
- 제조업 중심의 남성 위주 조직문화는 여성 구직자의 적응을 어렵게 함.

-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의 기업은 대부분 서울에 있어, 왕복 3~4시간에 달하는 통근 시간과 높은 주거비용이 장벽으로 작용함.
- 결과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사기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공공부문으로 눈을 돌리거나, 인천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됨.
- 현재 청년 일자리 정책은 구직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재직자나 이직 희망자는 지원에서 배제됨.
-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재직자를 위한 야간·주말 교육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함.
-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구조로 인해 프리랜서, 예술인 등 비정형 노동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움.
- 30대 여성 구직자는 면접에서 결혼·자녀 계획 등 사적인 질문을 받으며, 이로 인해 이직 및 경력 개발에 소극적이게 됨.
-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 시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함.

4. 정책 개선 요구사항

- 청년 일자리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아, 오프라인 접점 확대가 필요
- 분기별 30만 원 분할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합산·이월 또는 차액 추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정장 대여 등 인기 사업이 연초에 조기 마감되어 하반기 구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함.
- 청년 인구 비율에 따른 예산 차등 배정, 예비비 확보 등이 필요함.
-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재직 청년도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함.
- 프리랜서, 예술인 등 정규직 형태가 아닌 청년을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함.
- 단기적 취업 지원보다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함.

5. 핵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핵심결과 요약

- FGI 결과, 정책 참여자와 미참여자 그룹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요구사항을 보였음.
- 두 그룹의 특성을 정책 인식, 핵심 문제, 정책 평가, 개선 제안의 네 가지 차원에서 비교하면 [그림 6-1]와 같음.

[그림 6-1] FGI 핵심 결과 요약 비교

	🔍 정책 인식	! 핵심 문제	🔄 정책 평가	★ 개선 제안
참여자	경험기반 정책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	경험 후 문제 프로그램 디테일, 구조적 문제 제기	명확한 명암 체감도 높은 정책 운영상 아쉬움	프로그램 고도화 기존 제도의 질적 개선 필요 지적
미참여자	인지 부재 홍보 부족 및 정책 매력도 부족	참여 전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책 사각지대 지적	회의적/비판적 타 시도 대비 매력도 및 신뢰 부족	근본적 체질 개선 전반적으로 수요중심 개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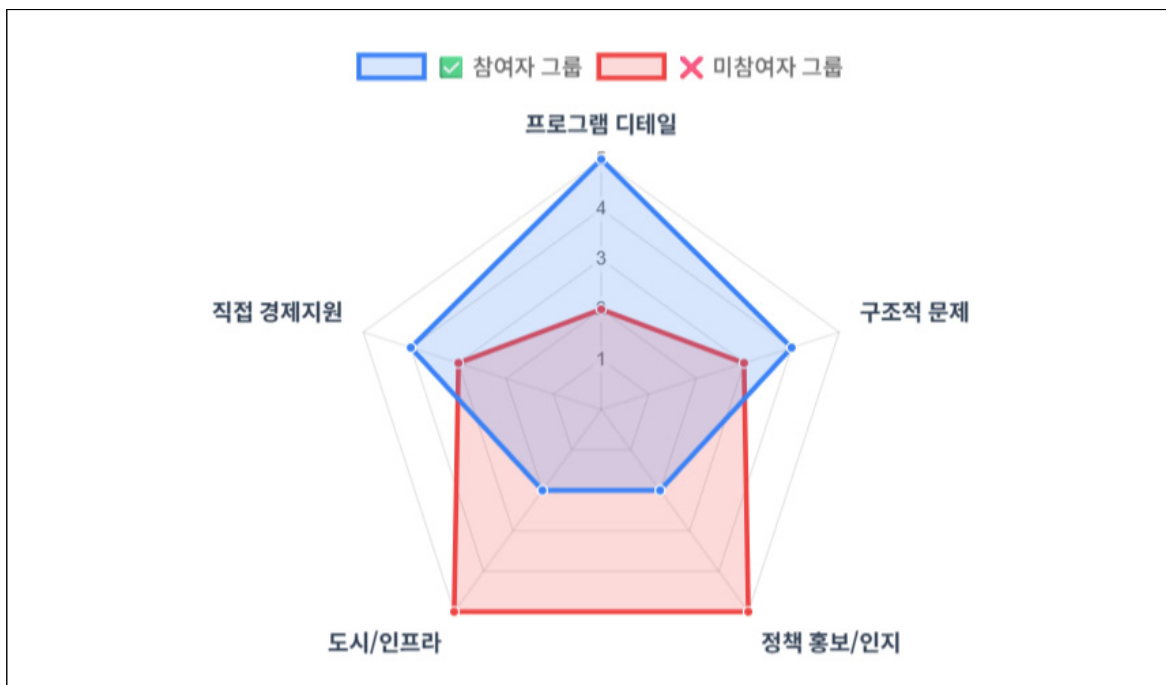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 참여자 그룹은 실제 정책을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 이들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디테일(복지포인트 사용 제한, 예산 조기 소진 등)과 '중고신입' 선호 등 구조적 문제였음.
 - 정책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세부 운영 방식의 아쉬움을 표현했음. 이에 따라 개선 제안도 기존 제도의 질적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음.
- 미참여자 그룹은 정책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음.
 - 이들은 홍보 부족과 함께 인천의 일자리 매력도 자체가 낮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음.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비판적 시각이 강했으며, 타 시도 대비 인천의 매력도와 신뢰 부족을 언급했음.
 - 개선 제안은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 기업 유치 등 근본적·구조적 체질 개선에 집중되었음.

2) 그룹별 핵심 관심사

- 두 그룹이 FGI에서 언급한 주제의 빈도와 강조점을 분석한 결과, 관심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 참여자 그룹(파란색)은 '프로그램 디테일'과 '직접 경제지원' 영역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이는 실제로 정책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반영된 결과임.
 - 반면 구조적 문제나 도시 인프라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미참여자 그룹(빨간색)은 '구조적 문제', '정책 홍보/인지', '도시/인프라' 영역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정책을 경험하지 못한 만큼 개별 프로그램보다는 "왜 좋은 일자리가 없는가", "왜 정책이 알려지지 않는가"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이러한 차이는 두 그룹 모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참여자 피드백은 기존 정책의 질적 개선에, 미참여자의 피드백은 정책 접근성 제고와 구조적 환경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음.

[그림 6-2] FGI 진행 과정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3)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이중 전략(Two-Track)'이 필요함.
 - 참여자 그룹을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고도화 전략'이, 미참여자 그룹을 위해서는 정책 인지도 제고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확장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둘째, 미참여자 그룹은 정책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채널의 다각화가 시급함.
 - 기존의 홈페이지·SNS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알림톡, 유튜브 광고, 오프라인 전단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비대면 온라인보다 현관문 전단지 등 물리적 접촉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셋째,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함.
 - 현재 정책이 '미취업 구직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재직자·이직 희망자·비정형 노동자(프리랜서, 예술인 등)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야간·주말 교육 프로그램, 비정형 노동자 맞춤형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넷째, 경제적 지원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함.
 - 청년복지포인트의 분기별 30만 원 분할 지급 방식, 포인트 합산·이월 불가 등의 제약은 실제 사용 편의성을 떨어뜨림.
 - 또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정장 대여 등 인기 사업의 조기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인구 비율에 따른 예산 차등 배정, 예비비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다섯째, 단기 취업 지원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서울 소재 기업의 인천 분사 유치, 제조업 외 서비스·IT·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 확충이 병행되어야 청년들이 인천에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임.
- 여섯째, 인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요구됨.
 - 현재 인천의 일자리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청년 선호 직무가 부족하고, 남성 중심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 구직자의 적응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30대 여성이 면접에서 결혼·출산 관련 질문을 받는 등 경력단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함.

07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유형 진단 및 우수사례

1. 지원 프로그램 유형 분석

○ 일자리 정책은 크게 취업 지원, 역량 강화, 재직 지원, 창업 지원, 간접 및 특정 분야 지원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7-1] 일자리 정책 유형별 특징

구분	내용
취업 지원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유형.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성 지원 중심: 구직활동 지원금, 면접 비용 지원 • 일자리 매칭 강화: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 디지털 전환 지원: AI 잡매칭, 메타버스 박람회
역량 강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 이동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신기술 집중: K-디지털트레이닝 • 지역 전략산업 연계: 지역별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일·경험 프로젝트: 실무경험을 쌓는 프로젝트 통합 제공
재직 지원	중소기업 기피 및 잦은 이직 문제 해결. 취업 후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형성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삶의 질 향상: 복지포인트, 교통비, 문화비 • 근로환경 개선: 기숙사비, 통근버스 등
창업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대 추세. 아이디어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금융 지원: 단계별 자금 확보 지원 • 인프라 제공: 스타트업파크 등 • 특화 분야 발굴: 지역 특성 반영 창업 지원
간접 및 특정 분야 지원	정책 사각지대 보완. 특정 청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 지원: 니트(NEAT), 은둔 등 • 심리/정서 지원: 심리 상담 등 • 권익 보호 및 커뮤니티: 관계망 지원

출처: 연구자 작성

○ 2025년 청년일자리 정책은 정책 중심 이동과 지원 범위 확장,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을 기반으로 추진됨.

- (정책 중심 이동) 단순 현금성 지원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
- (지원 범위 확장) 취업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직 지원과 역량 강화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마음 건강 등 정서 안정을 돕는 간접 지원 역할 또한 증대됨.
-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다섯 개 유형이 상호 보완 하며 지원체계 완성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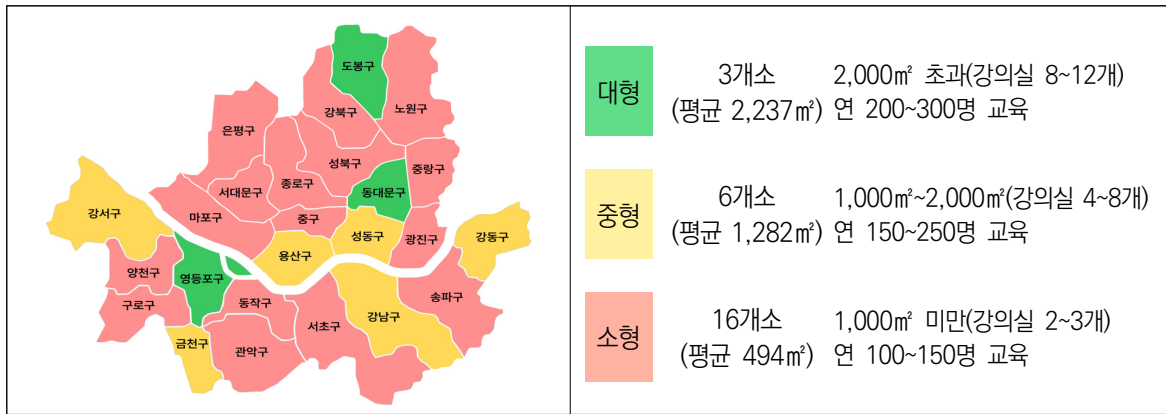
- 향후 정책 간 균형을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성장 지원’과 ‘미래 사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타 지자체 우수사례

1) 청년취업사관학교(Seoul Software ACademy, SeSAC)

-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현장 중심의 교육 플랫폼임.³⁾
 - 영등포캠퍼스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캠퍼스 운영을 확대했으며, 2025년 11월 중랑캠퍼스 개관을 마지막으로 ‘1자치구 1캠퍼스’ 체제를 완성함.⁴⁾

[그림 7-1] 자치구별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5.11.11.). ‘십중팔구 취업성공’ 청년취업사관학교 2.0…AI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 ‘Life Transformation: 꿈꾸는 개발자 데뷔코스’를 대표 슬로건으로 하여,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실무 투입형 융합 인재 양성이 주요 목적임.
 - AI를 중심으로 하는 SW·DX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함.

[표 7-2]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특징

구분	정의	특징	기간	목표
AI 핵심/융합(SW) 트랙	AI 핵심/융합 기술을 갖춘 범용 개발자 트랙	AI·클라우드·데이터·웹/앱	3~6개월	AI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AI 융합(DX) 트랙	산업 전반 AI 융합 비개발 직무 혁신 인재 양성 트랙	기획분석·콘텐츠·마케팅 등	3~4개월	AI 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과제를 해결하는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

출처: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 SeSAC 소개(검색일: 2025년 11월 13일)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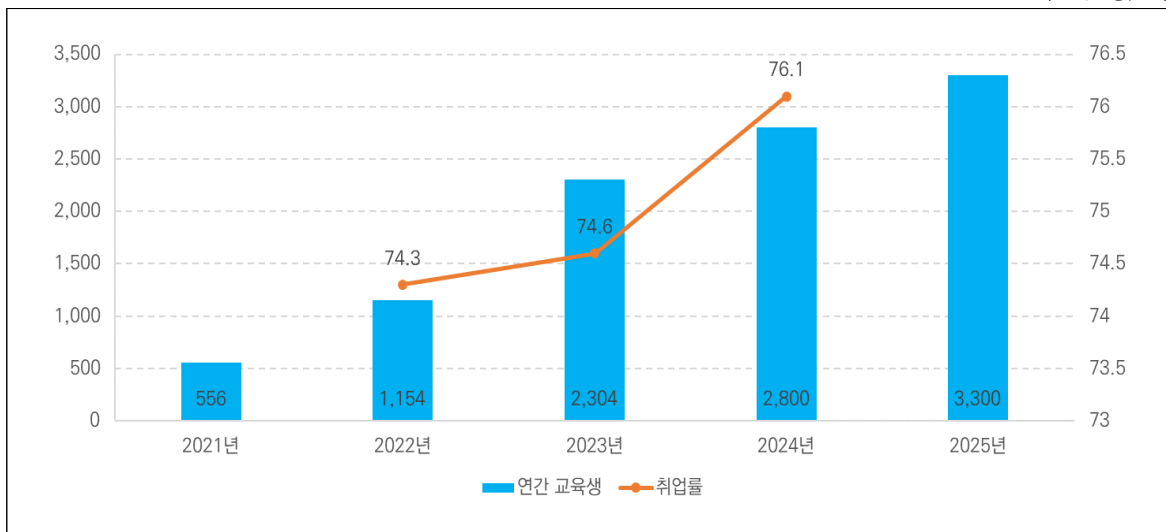
3)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새싹 소개.

4) 조수봉. (2025.11.5.).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6068>(검색일: 2025년 11월 18일)

- 2025년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은 3,300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2021년 이후 누적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함.
 - 연간 교육 인원은 시작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1년 대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임.
- 교육 인원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살펴봤을 때, 2024년에 76.1%로 사업 기간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함. 이는 전년 대비 1.5%p 증가한 수치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75%의 취업률을 보임.

[그림 7-2] 청년취업사관학교 연간 교육생 수 및 취업률

(단위: 명,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5.11.11.). '십중팔구 취업성공' 청년취업사관학교 2.0...AI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연구자 재구성)

- AI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I 중심으로 기존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 등을 추가 운영함. 그 결과, 전년도 동 기간 대비 교육 인원 중간 취업률이 26%p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음.

[표 7-3] AI 산업으로 분야 재편 전후 비교

구분	재편 전 (2024년)	재편 후 (2025년)	비고
AI 교육과정	10개 과정(217명) ※ 전체: 110개 과정(2,800명)	130개 과정(3,300명)	AI 교육과정 13배 증가
모집경쟁률	3:1	3.3:1	교육생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경쟁률 증가
중간 취업률	23% (2024.4.~2024.9.)	49% (2025.4~2025.9.)	같은 기간 대비 중간 취업률 26%p 상승

출처: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 SeSAC 소개(검색일: 2025년 11월 13일)⁶⁾

5) <https://sesac.seoul.kr/common/menu/html/900006002001/detail.do>

6) <https://sesac.seoul.kr/common/menu/html/900006002001/detail.do>

[그림 7-3] 청년취업사관학교 2.0 비전 체계

비전	청년의 미래를 여는 AI 인재 허브						
슬로건	“1089(십중팔구)* 프로젝트” ※수료생 10명 중 8, 9명은 취업에 성공						
2030 목표	① AI 인재 2025년(3,300명) → 2026년(4,000명) → 2030년(10,000명) 양성 ② 취업률 2025년(75%) → 2026년(76%) → 2030년(80%) 달성						
추진 전략	현장 수요 대응형 교육체계 구축	취업, 창업 프로그램 강화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확대				
3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	①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 운영 강화	⑤ 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규	⑨ 청년취업사관학교 인프라 지속 확충 강화				
	② 지역 산업거점별 특화과정 운영 신규	⑥ 시정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규	⑩ 서울 AI인재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신규				
	③ 산·학·연 연계 고급 인재양성 트랙 운영 신규	⑦ AI 전문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신규	⑪ 청취사 동문 네트워크 구축· 운영 강화				
	④ 성과·역량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운영 강화	⑧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도입 강화	⑫ 사회적 약자 참여기회 확대 강화				
성과 지표	구분	단위	2026	2027	2028	2029	2030
AI 인재 양성 수	명		4,000	5,000	6,500	8,000	10,000
취업률	%		76	77	78	79	80
얼라이언스 참여기관(누적)	개		50	100	150	200	250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5.11.11.). ‘십중팔구 취업성공’ 청년취업사관학교 2.0…AI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그림 7-4] 청년취업사관학교 2.0의 지역산업 거점별 특화과정 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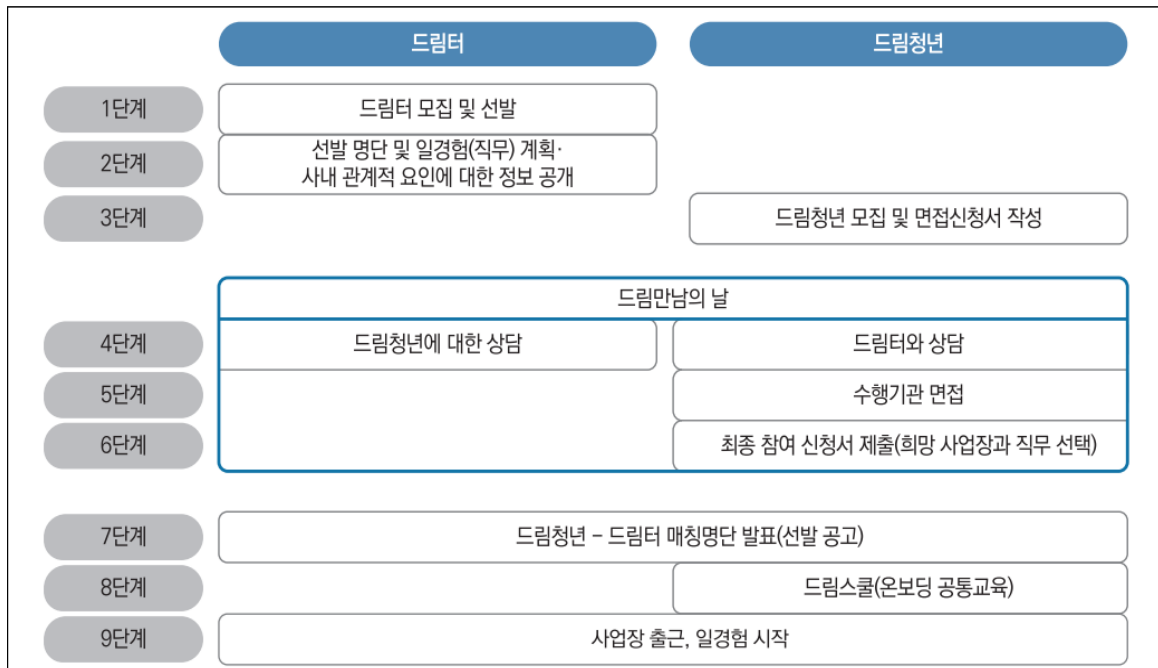


출처: 내 손안에 서울(2025.11.11.). 십중팔구 취업! ‘청년취업사관학교’ 엔비디아 등 손잡고 인재양성(검색일: 2025년 11월 18일)

2)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 광주광역시 내 청년인구와 고용률이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함.
- 광주광역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제공과 더불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한 소득 보장 및 취업 지원 등을 함께 지원함.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그림 7-5]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참여 과정



출처: 백경호. (2025). 광주지역 청년네트(NEET)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드림청년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일경험 외에도 생활임금과 드림스쿨 참여, 멘토드림, 드림넷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생활임금)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
 - (드림스쿨) 온보딩 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특별 교육 등 매월 교육 진행
 - (멘토드림) 직무 고민 해소를 위해 드림청년 출신 상시 상담 재직자 멘토단과의 멘토링을 통해 직무 역량 발전
 - (드림넷) 조별 집단상담 기반 경험 공유 및 소통, 직업·진로 정보 탐색
- 2025년(17기) 기준, 청년 451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 248곳의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쌓는 중이며, 이를 위해 시비 77억 원을 투입함.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418명의 청년과 사업장 5,002개를 매칭함.

7)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6143>

- 누적 사업비는 713억 8,200만 원으로, 그중 약 636억 원(89.1%)을 시비로 투입했으며 나머지 77억 9,000만 원(10.9%)은 국비로 충원함.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임.
- 2021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 삭감 위기가 있었으나, 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히려 기존보다 예산을 늘려 총 100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함.

[표 7-4]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및 참여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개소)

연도 및 기수			사업비			참여 현황	
			계	국비	시비	드림청년	드림터
정책 발전기	2017	1기	2,500	-	2,500	140	86
		2기				140	110
	2018	3기	6,499	1,640	4,859	250	162
		4기				517	246
	2019	5기	9,300	2,855	6,445	500	314
		6기				510	342
	2020	7기	10,200	2,434	7,766	529	344
		8기				610	384
정책 안정기	2021	9기	10,000	-	10,000	565	351
		10기				512	327
	2022	11기	8,379	662	7,717	482	399
		12기				490	355
	2023	13기	9,104	199	8,905	480	356
		14기				342	393
정책 변화·혁신기	2024	15기	7,700	-	7,700	430	296
		16기				470	289
	2025	17기	7,700	-	7,700	451	248
계			71,382	7,790	63,592	7,418	5,002

출처: 백경호. (2025). 광주지역 청년네트(NEET)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국비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은 금액

- 사업 초기에는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했으나, 정책 환경 변화와 명확한 전달체계 등을 위해 2024년부터 통합 운영 형태로 변경함.
- 2025년부터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직무 중심으로 참여 유형을 개편했고, 청년들과 사업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도형’과 ‘집중참여형’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함.
- 자기주도형: 5개월간 주 25시간 근무, 집중참여형: 3개월간 주 40시간 근무

[표 7-5]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의 참여유형 변화 과정

연도	기수	참여유형 변화	사업대상	지원내용				
2017	1	5개 유형별 수행기관 • 공공기관형, 청년활동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만 19~34세	주 25시간, 4개월				
	2							
2018	3	5개 유형별 수행기관, 통합지원기관 신설		만 19~34세	주 25시간, 6개월			
	4	6개 유형별 수행기관, 통합지원기관 • 공공기관형, 공익활동형(명칭 변경),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창업기업형(신설)						
2019	5	6개 유형별 수행기관, 통합지원기관		만 19~34세	주 25시간, 5개월			
	6							
2020	7							
	8							
2021	9					5개 유형별 수행기관, 통합지원기관 •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가치형(공익활동형+사회적경제형), 청년창업기업형	만 19~34세	기본트랙+직무심화트랙 (주 25시간, 10개월)
	10							
2022	11							
	12							
2023	13	만 19~39세		기본트랙+직무심화트랙 +직무탐색트랙(1회 반복 참여)				
	14							
2024	15	단일 수행기관		만 19~39세	기본트랙			
	16	• 사업장 분류: 공공기관유형, 민간기업유형						
2025	17	단일 수행기관 • 직무 분류, 자기주도형·집중참여형 신설		만 19~39세	기본트랙(자기주도형) +집중참여형(주 40시간, 3개월)			
	18	운영 예정						

출처: 백경호. (2025). 광주지역 청년네트(NEET)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3) 한국자산관리공사 G-JUMP

- 광주광역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광역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함.
 - 취업 정보와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취업 기회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됨.
 -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보유한 청년 인재와 네트워크를 활용함.
- G-JUMP는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 지역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차세대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임.
 -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3개 금융 공공기관 광주지역본부가 참여해 멘토링 사업을 진행함.

- 처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5년에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주관함.
- 2024년 6월에 진행된 1차 MOU를 통해 8개 금융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올해 4월 2차 확대 MOU를 체결하면서 광주광역시와 금융 공공기관 5개가 추가됨.
- 참여 기관: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13개)

[그림 7-6] G-JUMP 거버넌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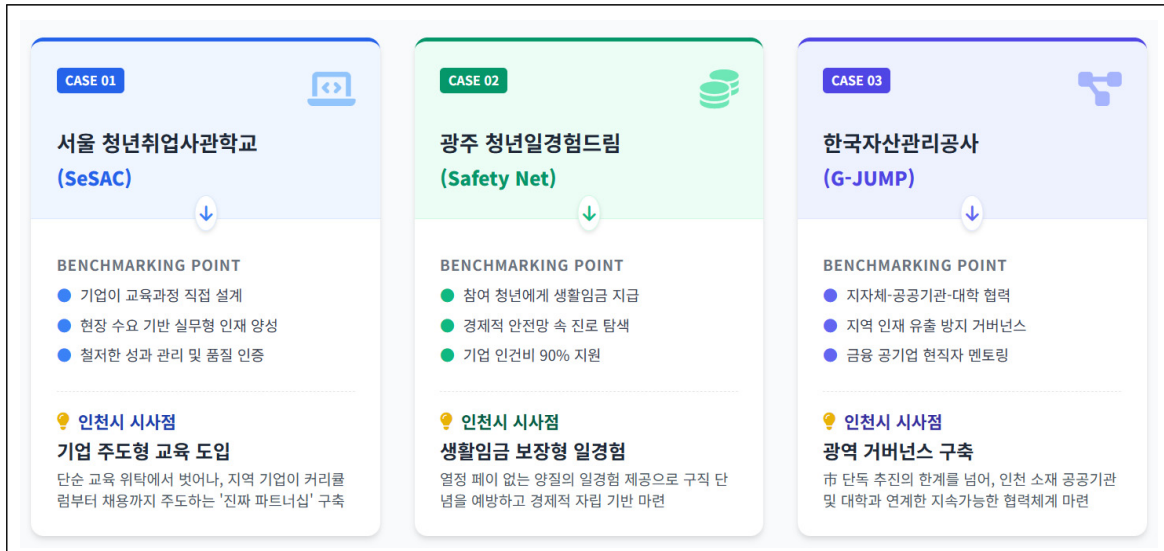
자료(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내부자료]

- 금융 공공기관 현직 멘토와의 멘토링을 기반으로 NCS 교육과 전문가 특강, 토크콘서트 등의 활동을 진행함.
- 2024년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에는 40명으로 그 인원을 확대했고 총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함.
-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② 현직자 멘토링 및 기업 탐방, ③ 지역 연계 프로그램, ④ 지역사회 공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AI 커리어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 적성 검사와 필기·면접 특강, 자소서 1:1 첨삭, 현직자 모의 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참여 공공기관 협조를 기반으로 현직자 1:1 취업 멘토링과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함.
- 그 결과, 지금까지 지역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400회 이상 시행했고, 5점 만점 중 4.95점이라는 높은 참여자 만족도를 기록함.
- 전국 최초로 민·관·공·학 청년취업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방 소멸과 인재 유출 해소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대표 사례로 평가받음.

3. 벤치마킹 시사점

- 본문에서 살펴본 우수사례는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광주 청년일경험드림, 한국자산관리공사 G-JUMP 세가지로 각각이 우수한 사례로 벤치마킹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 시사점을 인천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그림 7-7]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자료 : 연구진 작성

1)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 서울시가 운영하는 SeSAC은 기업 현장 중심의 교육 플랫폼으로, 200여 개 협력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참여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 벤치마킹 포인트
 -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현장 수요와 교육 내용의 일치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 현장 수요 기반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 교육 수료 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철저한 성과 관리 및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 시사점
 - '청년도약기지' 프로그램을 기업 주도형 교육 모델로 전환하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야 함

- 단순 교육 수료가 아닌 채용 연계까지 보장하는 일체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필요함
-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2) 광주 청년일경험드림

- 광주시의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면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안전망형 정책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모범사례임
- 벤치마킹 포인트
 - 참여 청년에게 광주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일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일경험 제공과 함께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함
 - 기업 인건비의 90%를 지원하여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음
- 인천시 시사점
 -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해야 함
 - 단순 일경험을 넘어 체계적인 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함

3) 한국자산관리공사 G-JUMP

- G-JUMP는 13개 금융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역 거버넌스 모델로,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인 멘토링을 제공하여 금융권 취업을 지원하는 협력형 프로그램임.
- 벤치마킹 포인트
 -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있음
 - 현직 전문가와 1:1 멘토링을 통해 실무 지식과 취업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있음
 - 공공기관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취업 연계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인천시 시사점
 - 인천 소재 공공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의 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현직자 멘토-멘티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해야 함
 -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공 부문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가 필요함

08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정책환경 분석 및 진단 종합

- 본 보고서는 인천 청년일자리 현황을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정책 현황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그림 8-1] 인천 청년일자리 현황 종합 진단



자료 : 연구진 작성

-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입지 우위와 제조업 기반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년 선호 산업 부족 등의 약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1]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SWOT분석

S 강점(Strength)	W 약점(Weakness)
수도권 입지 공항/항만 글로벌 물류 인프라 견고한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	서울/경기 대비 낮은 경쟁력 청년 선호 산업(IT 등) 부족 낮은 정책 체감도
O 기회(Opportunity)	T 위협(Threat)
바이오/반도체 성장 정부 청년정책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	청년인구 지속 감소 수도권 경쟁 심화 중고신입 선호 문화

- 앞서 분석한 인천 청년일자리 현황과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함.
- 이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인천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고자 함.

[그림 8-2] 인천시 청년일자리 3대 핵심과제 도출 결과



자료 : 연구진 작성

2. 청년일자리 정책 비전 및 핵심 전략

1) 정책 비전

- 인천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비전은 '청년이 도약하는 인천, 함께 성장하는 미래'로 설정함.
- 이는 청년 개인의 성장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지향함.
 - '청년이 도약하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인천': 청년이 수도권 타 지역이 아닌 인천에서 기회를 찾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지역 중심적 관점을 반영함
 - '함께 성장하는 미래': 청년-기업-지역사회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한다는 포괄적 목표를 제시함

[그림 8-3]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비전 및 4대 전략방향



자료 : 연구진 작성

2) 4대 핵심 전략 방향

-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4대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으며, 각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함.

(1) 미스매치 ZERO 프로젝트

- (현장성 강화)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청년의 눈높이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프로젝트 경험을 확대함.
- (투트랙 접근) 고속런 인재를 위한 실무 경험(리버스 인턴십)과 구직 단념·준비 청년을 위한 심리·진로 회복(인천형 깡이어)을 병행하여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단계별로 완화함.
- 주요 사업: 리버스 인턴십, 인천형 깡이어

(2) 청년 생애주기 통합지원

- (접근성 제고) 정책을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공급자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AI 및 옴니채널(카카오톡, 오프라인 등) 등 '찾아가는 홍보'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 (유연한 행정) 학습-구직-재직 등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원스톱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임.
- 주요 사업: 커리어 멘토링, 유스톡톡 고도화, 행정체계 개편(원스톱)

(3) 디지털 전환 선도인재 양성

- (신산업 대응) AI·SW 분야 핵심 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인재를 집중 양성함
- (인재 육성) 바이오, 반도체 등 인천 전략산업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주요 사업 : 청년도약기지 디지털과정 신설

(4) 청년친화 기업생태계 조성

- (포용적 지원)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비정형 노동자(N잡러)를 포괄하는 사각지대 없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함.
- (문화 개선) 성평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을 지원하여 MZ세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을 조성함.
- 주요 사업: 재직자(프리랜서 포함) 통합지원 시스템, 청년 모임 및 문화 개선 지원

09 청년 일자리 정책 실행계획

1. 4대 전략 기반 중점과제별 실행계획

1) 전략1 : 미스매치 ZERO 프로젝트

(1) 리버스 인턴십 프로그램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기업의 실제 현업 과제를 대학생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산학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함
- (추진 필요성)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 수요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기업 채용 시 '직무수행 적합 인재 부족'이 51.3%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특히 청년들의 실무 경험 부족으로 취업 후 조기 퇴사율이 38.7%에 달함

② 세부 운영 방안

- 청년정책담당관이 총괄하고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며 관내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1월~12월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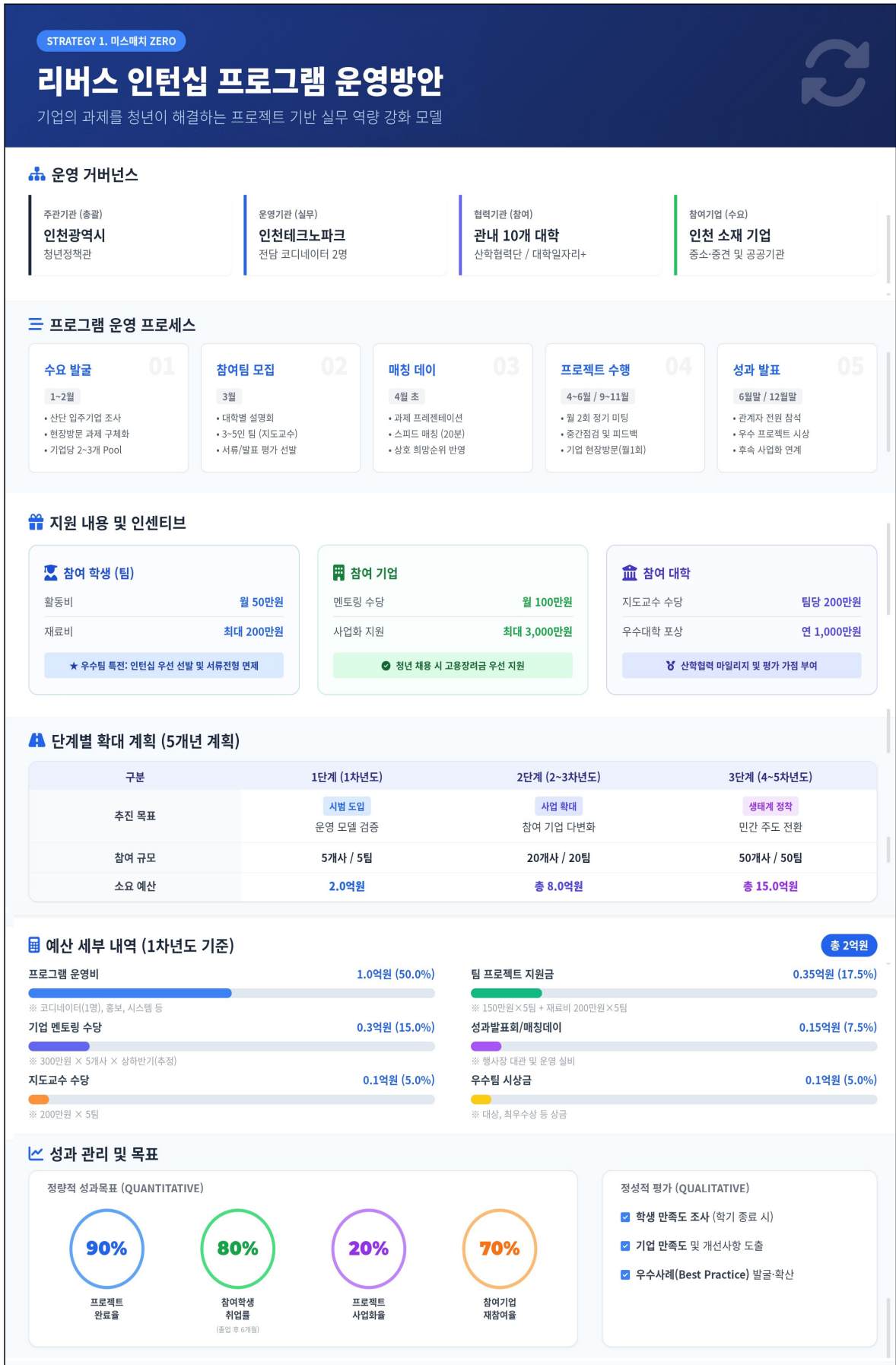
③ 단계별 확대 계획

- 5개팀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평가를 거친 후, 10개팀으로 차년도에 사업을 확장하고 이후 30개팀으로 지원을 증액하여 인천시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

④ 기대 효과

- (청년) 실무 프로젝트 수행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기업 문화 사전 체험, 취업 연계 기회 확보
- (기업) 신선한 아이디어 확보, 우수 인재 조기 검증, R&D 비용 절감
- (대학) 산학협력 실적 확보, 교육과정 현장성 강화, 취업률 제고
-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그림 9-1] 리버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방안



(2) 인천형 깡이어 프로그램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쉬었음' 상태의 청년에게 6개월간 자기 탐색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
- (추진 필요성) 구직 단념과 번아웃으로 인한 청년 은둔형 외톨이 증가
 - 인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1%로 전국 최고 수준

②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내용

- 6개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팀 프로젝트 단위의 형태로 운영

③ 단계별 확대 계획 및 예산구성

- 1차 연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2~3차 연도에 모델을 확대하여 연 3회 모집으로 확대하는 방안
- 예산은 활동지원금, 운영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젝트 활동비로 구성함

④ 성과 관리 방안

- 프로그램 수료율, 정서적 안정화율 등 정량적 목표와 진로 효능감 등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성과 관리

⑤ 기대 효과

- (청년) 자존감 회복, 구직 의욕 고취, 진로 방향 설정,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사회적 효과) 청년 은둔형 외톨이 예방, 구직 단념자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경제적 효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전환, 장기적 사회비용 절감

[그림 9-2] 인천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방안



☑ 단계별 확대 계획 (5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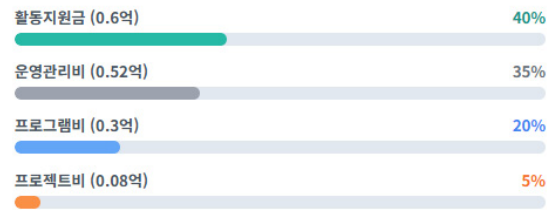
구분	1단계 (1차년도)	2단계 (2~3차년도)	3단계 (4~5차년도)
운영 목표	시범 운영 (1기)	상·하반기 정례화	권역별 확대 운영
참여 인원	20명	연 100명	연 200명 이상
소요 예산	1.5억원	총 7.0억원	총 14.0억원

☑ 단계별 확대 및 정착

구분	1단계('26)	2단계('27~'28)	3단계('29~'30)
인원	20명	연 100명	연 200명+
팀	4팀	20팀	40팀+
예산	1.5억	7.0억	14.0억

1기 시범 → 상·하반기 확대 → 권역별 확대 및 정착

📊 예산 세부 내역 (1차년도)



📈 성과관리 방안 (KPI)

정량적 지표 (회복 및 준비도)



정성적 지표 (내면의 성장)

- ★ 자아존중감(Self-Esteem) 향상
사전/사후 검사 비교 분석
- 🎯 진로 효능감 및 명확성 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구체화 정도
- 😊 참여자 만족도 및 수기
우수 변화 사례집(Case Book) 발간

2) 전략2 : 청년 생애주기 통합지원

(1) 커리어 빌드업 멘토링 프로그램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직무 정보와 경력 경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 청년과 인천 전략산업 현직자를 1:1로 매칭하여, 실질적인 취업 준비와 네트워킹을 지원
- (추진 필요성) 청년들이 인적 네트워크 부재로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현실적인 경력 경로 정보 부족으로 막연한 구직활동 지속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
 - 청년의 38.7%가 직무 불일치로 퇴사

②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내용

- 공사에서 멘토풀을 구성하여 6개월 단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 핵심멘토 그룹은 1차 연도에 인천소재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2차 연도에는 전략산업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3차 연도에는 유망 스타트업 신청 및 발굴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

③ 참여자 지원 협력체계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주관하고 공기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참여기관으로 역할을 하며, 멘토와 멘티에게 각각 활동비와 활동지원비를 지급

④ 단계별 확대 계획 및 예산 세부내역

- 1차 연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2~3차 연도에 모델을 확대하므로 1차 연도 시범예산은 8천만 원 정도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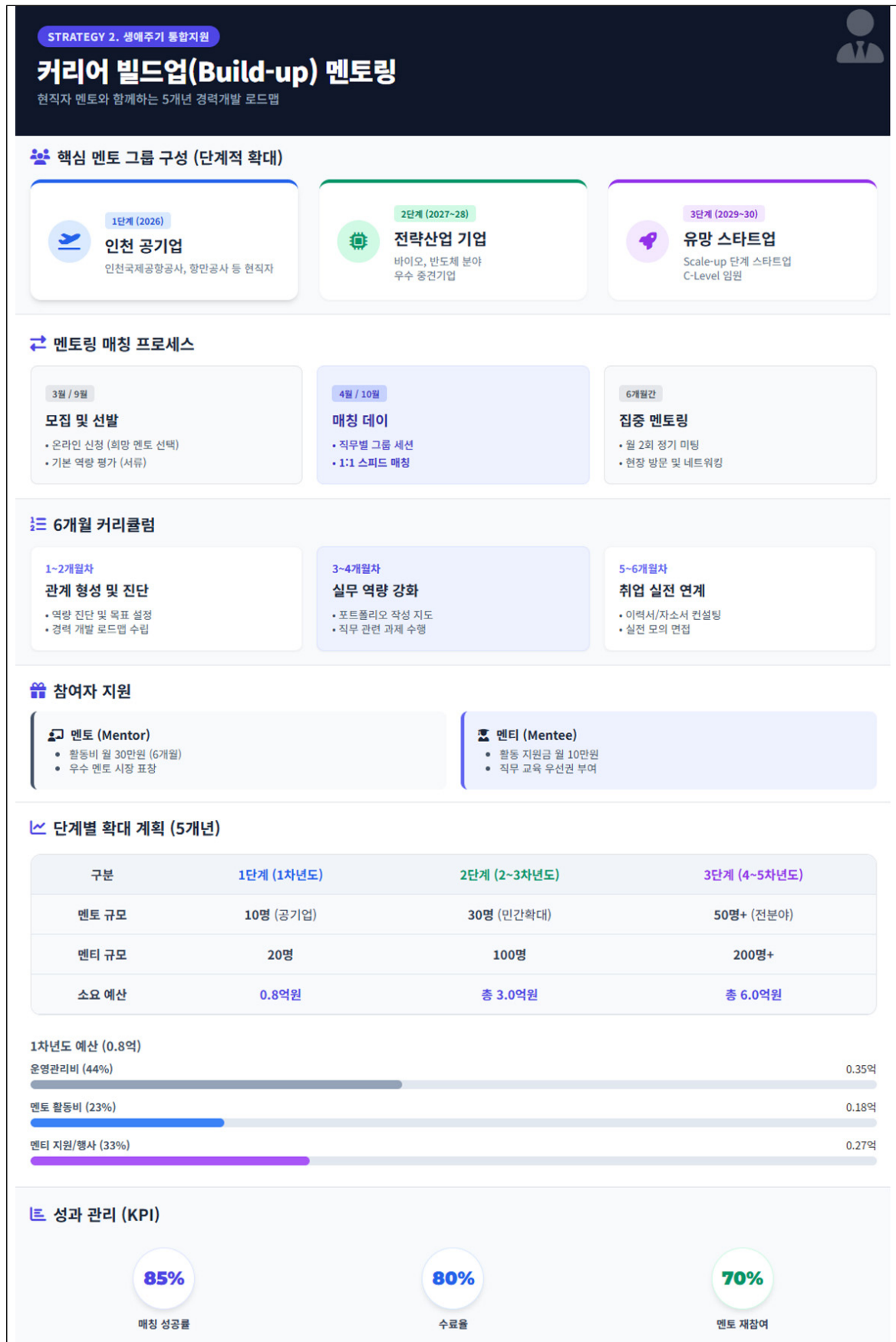
⑤ 성과 관리 방안

- 매칭 성공률, 멘토 재참여율 등 정량적 목표와 멘티 멘토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성과 관리

⑥ 기대 효과

- (멘티) 현실적 경력 설계, 직무 이해도 향상, 인적 네트워크 확보, 취업 성공률 제고
- (멘토) 후배 양성을 통한 사회 공헌, 리더십 역량 개발, 신규 인재 발굴 기회
- (기업) 검증된 인재 확보, 채용 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제고
- (지역) 청년-기업 간 연결 강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그림 9-3] 커리어 빌드업(Build-up) 멘토링



(2) 인천유스톡톡 고도화 사업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기존 정보 나열식 청년정책 포털을 개인 맞춤형 정책 추천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개선
- (추진 필요성) 청년들이 정책 신청 후 후속 정책 연계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정책 단절 발생
 - 현재 청년정책 인지도 55%에 불과, 실제 수혜율은 더욱 낮음
 - 여러 부서 58개 사업이 분산되어 있어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 찾기 어려움

② 시스템 개편 방향

- 단순 나열식 정보를 관심 정책 기반 개인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원클릭 통합신청 시스템 구축

③ 예산 및 성과관리 방안

-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챗봇시스템(AI)을 활용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성과지표는 정량지표 위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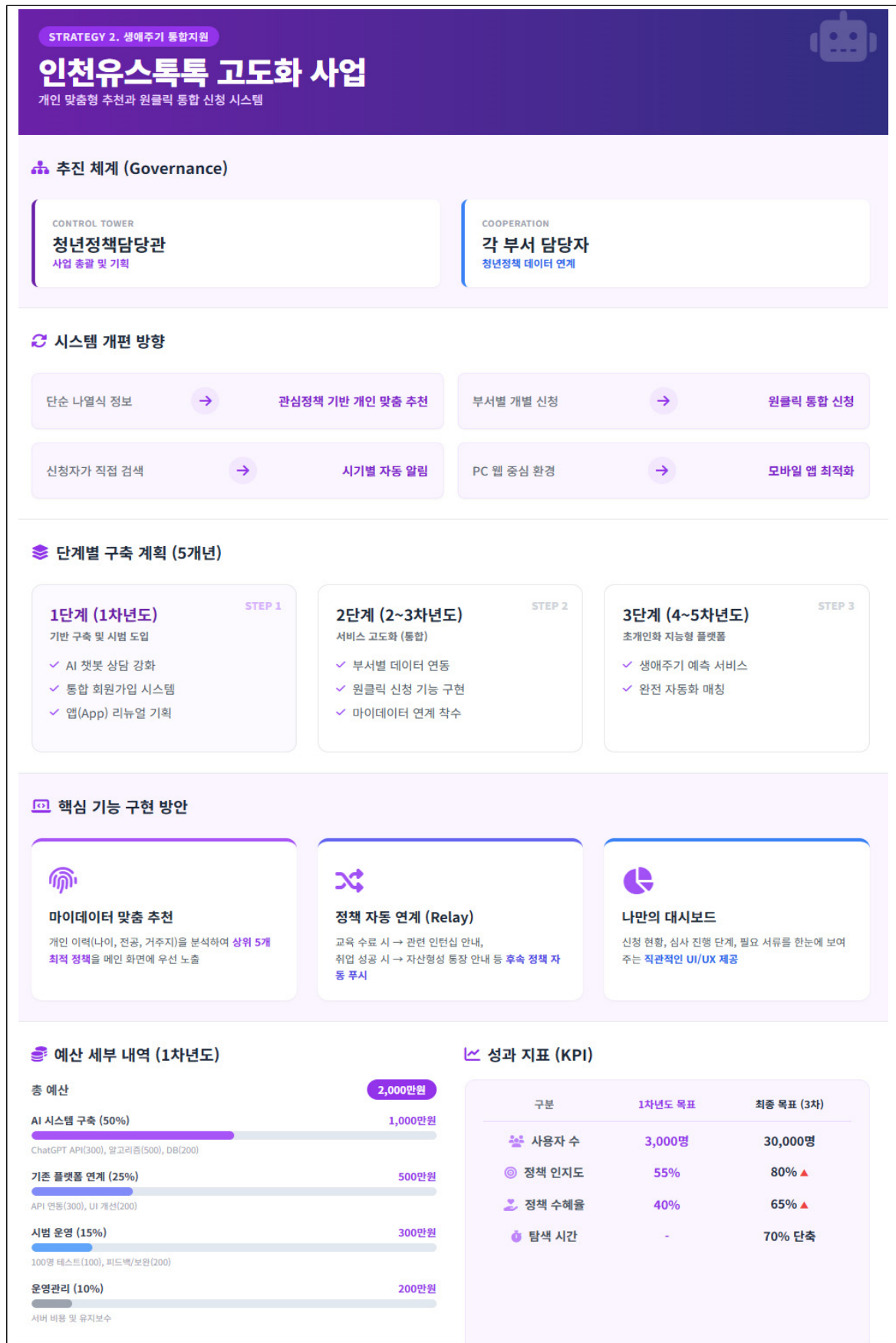
④ 추진체계

- 청년정책담당관이 사업을 총괄 및 기획하되, 부서별 담당자들을 통해 청년정책 데이터를 연계
 - 청년정책담당관 : 사업 총괄 및 기획
 - 유지관리 업체 : 개발 담당
 - 각 부서 담당자 : 청년정책 데이터 연계

⑤ 기대효과

- (청년) 맞춤형 정책 정보 손쉽게 획득,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정책 사각지대 해소
- (행정) 정책 전달 효율성 향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중복 행정 비용 절감
- (성과) 청년정책 체감도 대폭 향상, 정책 효과성 실시간 측정 가능

[그림 9-4] 인천유스톡톡 고도화 사업



(3) 청년정책 행정체계 혁신 사업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율성과 청년 체감도를 제고
- (추진 필요성)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간 시너지 창출 한계로 청년들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실정
 - 현재 23개 부서 58개 청년사업이 개별 운영되어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②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내용

- 통합 컨트롤타워 및 DB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스톱 정책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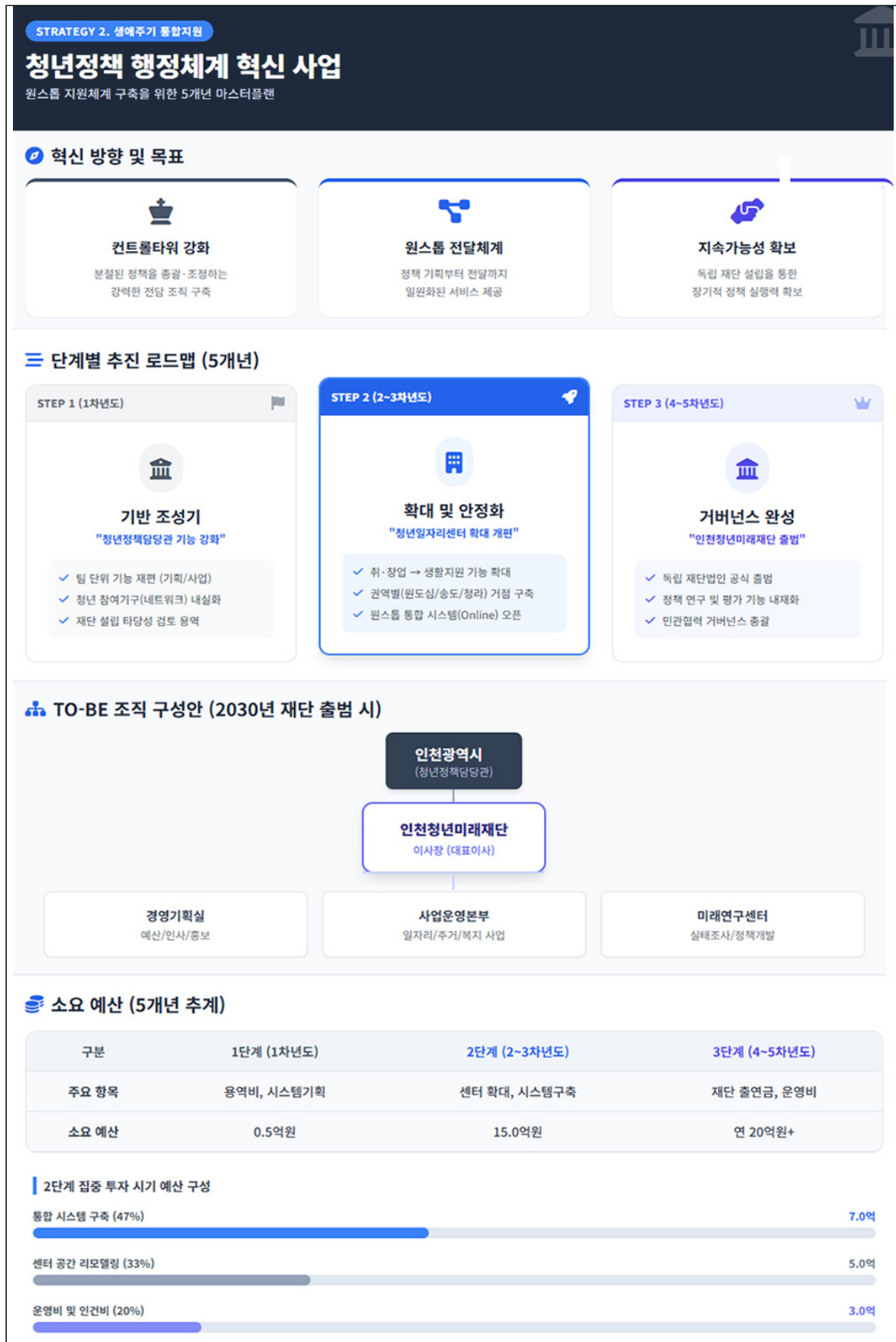
③ 추진체계 및 성과 지표

- 1단계 사업 기간(2026년)에는 청년정책담당관실 주관으로 1) 청년사업 사전협의제, 2) 청년정책 통합 DB, 3) 인천TP 기능 집중 등의 사업 추진
 - 청년사업 사전협의제 : 모든 청년 신규사업 기획 시 담당관 사전 검토를 권고하고 유·중복사업 조정 권한 부여하며 분기별 청년정책 조정회의를 주관함
 - 청년정책 통합DB : 전 부서 청년사업 현황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별 수혜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분석
 - 인천TP 집행 기능 집중 : 핵심 청년일자리 사업 단계적 이관
- 2단계 사업 기간(2027년)에는 기존 유유기지 확대 개편을 통해 공간성을 확보하고 상담-교육-취업-창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 시 파견 센터장과 상담사, 프로그램 매니저 등을 활용하여 시 주도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
- 3단계 사업기간(2029년~)에는 청년미래재단 설립 검토를 위한 작업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설립 추진을 위한 구조적 검토 등을 실시
- 정책인지도 상승비율, 정책중복률 하락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

④ 기대효과

- (단기) 중복 예산 절감 및 정책 사각지대 감소
- (중기) 청년 정책 접근성 2배 향상, 통합 서비스 만족도 확대
- (장기) 청년정책 선도 도시 위상 확립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그림 9-5] 청년정책 행정체계 혁신 사업



※ (참고) 행정체계 혁신 방안의 장단점 비교 ※

○ 기존 조직 강화는 효과가 신속하지만 제한적임. 반면, 독립기관 설립은 근본적인 해결이지만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큼.

[행정체계 혁신 방안의 장단점]

구분	필요성	기능적 범위	장점	단점
담당관/TP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조정 기능 부재 부서 간 협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조정 집행 관리 협업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실행 가능 낮은 추가 비용 기존 조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한 한계 명확 부서 이기주의 잔존 근본 해결 어려움
프로그램 통합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간 연계성 부족 서비스 단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사업군 통합 운영 생애주기별 패키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수행기관 책임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정책 통합 한계 기관 전문성에 의존
(가칭) 청년미래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근본적 해결 전문성·지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전 과정 총괄 (기획-집행-연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컨트롤타워 전문성·재원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설립 비용 장시간 소요 및 정치적인 부담
(가칭) 청년일자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청구 분석 원스톱 서비스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서비스 총괄 (상담, 신청, 교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청년 체감도 물리적인 거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기획 기능 부재 공간 확보·운영 부담

출처: 연구자 작성

◆ (단기) 기존 행정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혁신 방안

① 방안 1-1. 청년정책담당관 및 TP 기능 강화

- 기존 행정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분산된 집행 기능을 단계적으로 집중시키는 점진적인 개선안임
- 주요 실행 방안
 - (총괄 조정) 청년정책담당관 주관 ‘청년사업 사전협의제’ 의무화
 - (협업 유도) 부서별 KPI에 ‘청년정책 협업 실적’ 반영
 - (집행 집중) 인천 TP로의 핵심사업 위탁 범위 확대
- (기대 효과) 저 비용으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으로 예산 효율성 일부 개선 기대
- 반면 일부 연계된 정책 정보 습득 용이성 소폭 개선 수준에서 청년 체감도 개선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어 근본적인 정보 탐색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할 것

② 방안 1-2. 프로그램 통합 위탁 운영

- 청년 생애주기별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전문성을 갖춘 단일 기관에 통합적으로 위탁하는 운영 방식 개선안임
- 주요 실행 방안
 - 생애주기 단계별(학습~구직 등) 사업 패키지 설계
 - 공모를 통해 패키지별 최적 수행기관 선정
 - 예시) 학습~구직 패키지 → 인천 TP
 - 수행기관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관리 책임 부여
- (기대 효과) 사업 간 연계성 강화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수행기관 전문성 및 책임감 증대 전망
- 청년 체감도 역시 특정 사업군 내에서 정책 간 연계성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후속 지원 프로그램 탐색 및 신청 과정 간소화 등 끊김이 없는(Seamless) 지원으로 정책 참여 만족도 증대 전망

◆ (중장기) 기능적 통합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① 방안 2-1. (가칭) 청년미래재단 설립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의 기획-집행-연구-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독립 법인 형태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구조 혁신안임.
- 주요 실행 방안
 - 조례 제정 등 설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추진
 -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안정적인 출연금 기반의 중장기 정책 연구 및 사업 추진
- (기대 효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정책 일관성과 통합성 확보 및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기반으로 사업 지속가능성 증대 가능
- 정책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 등으로 청년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책 반영 체감
 -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으로 장기적인 미래 설계 가능

② 방안 2-2. (가칭)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 청년 활동과 교류, 상담, 정책 안내 및 신청 기능이 한 곳에 집약된 물리적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임.
- 주요 실행 방안
 - ‘유유기지’ 등 기존 공간을 확대 및 개편하여 종합센터로 설립
 - 다양한 부서의 청년정책 담당 인력을 센터 내에 공동 배치
 - 시(市) 직영 또는 전문 기관(인천 TP) 위탁 운영 방식 검토
- (기대 효과) 청년정책 접근성 및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일자리, 상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물리적인 거점 존재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증대 예상

3) 전략 3 : 디지털 전환 선도인재 양성

(1) 청년도약기지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운영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기존 청년도약기지 프로그램에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분야 청년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추진 필요성) 인천 전략산업(바이오, 물류, 항공)의 디지털화 대응 필요

②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내용

- 직무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병행하며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 교육을 통해 참석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
 - 기존 청년도약기지 사업을 활용하여 1-2개 사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으로 신설
 - 재직자 특화과정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내용을 실무형으로 구성하여 제공

③ 운영방식 및 소요예산

- 운영방식은 ‘강사협업형’과 ‘특강 결합형’ 두 가지를 병행하여 기획
 - 1차 연도에는 기존 강사가 디지털 내용 포함하여 강의하되 sw라이선스 구입비와 커리큘럼 개발비를 일부 지출하는 방식이므로 소요 예산이 3천만 원내외일 것으로 예상

④ 성과 관리 방안

- 디지털 역량평가, 자격증 취득률 등 정량적 지표와 수요생 만족도, 기업평가 긍정률 등 정성적 평가를 병행함.

⑤ 기대효과

- (청년) 디지털 기본 소양과 직무 역량 동시 습득, 취업 경쟁력 대폭 향상, 미래 직무 전환 대응 능력 확보
- (기업) 디지털 역량 갖춘 즉시 투입 가능 인재 확보, 재교육 비용 절감, 디지털 전환 추진 동력 확보
- (지역) 추가 예산 없이 디지털 인재 양성, 인천 청년의 수도권 내 경쟁력 강화, 전 산업 디지털화 대응 기반 마련

[그림 9-6] 청년도약기지 디지털 역량강화(Blending)



4) 전략 4 : 청년친화 기업생태계 조성

(1) 재직청년 자산형성 및 복지 통합지원 사업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복지향상을 근속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전
- (추진 필요성) 인천 청년 조기퇴사 사유 2위가 '낮은 임금'(21.8%)
 - 중소기업 3년 이상 근속률 45%에 불과
 - 관내·외 임금 격차 44.4만 원으로 청년 유출 심각

②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내용

- 현행 운영방식의 경우 복지포인트와 드림통장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시기를 놓쳐 혜택을 못받거나 중복 서류 제출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
- 이를 개선하여 입사 시 한 번만 신청하면 근속 연차별로 자동 전환하여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입사 시 한 번만 신청하면 근속 연차별로 자동 단계 전환 지원
 - 기업 인사 연동(API)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예산 및 지원규모는 기존수준을 유지하되, 방법만 간소화 및 효율화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그림 9-7] 자산형성 및 복지 관련 현행 문제점과 솔루션



- 입사 초기에 서류를 제출하면 적응기에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3-5년차에는 드림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매칭하며 6년차 이후에는 정착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년 친화 기업 생태계 조성
- 참여기업에는 기업부담금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우수기업 인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그림 9-8] 재직 청년 자산형성 및 복지 통합지원

STRATEGY 4. 청년 친화 기업생태계 조성

재직 청년 자산형성 및 복지 통합지원

입사 초기 복지부터 장기근속 자산형성까지 끊김 없는 지원

1. 통합 운영 체계 (근속 단계별 맞춤 지원)

1-2년차

적응기 (Settling)
초기 정착 지원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3-5년차

성장기 (Growing)
자산형성 본격화

드림통장
월 20만원 매칭

6년차 이상

정착기 (Rooting)
완전 정착 유도

추가 인센티브
주거지원 연계

자동 전환 시스템 (Auto-Pass)

- 근속 2년 완료 시 드림통장 가입 자동 안내 (알림톡 발송)
- 서류 간소화 (기존 재직 데이터 활용) 및 포인트 잔액의 통장 초기 자금 전환 가능

2.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Life Support

TARGET

- 만 19~39세 인천 거주 청년
- 중소기업(300인 미만) 재직자
- 월 급여 300만원 이하

BENEFITS

연간 지원액

120만원

(분기별 30만원)

USAGE

자기개발(학원, 도서), 문화생활(공연, 여행), 건강관리(헬스) 등
※ 미사용 포인트 다음 분기 이월 가능

드림For청년통장 Asset Building

TARGET

- 복지포인트 수혜 후 계속 근무자 (우선)
- 3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 가능자

MATCHING STRUCTURE

본인	인천시	기업
10만 ⁺	10만 ⁺	10만

RESULT (3 YEARS)

3년 만기 수령액

1,080만원⁺ + 이자 별도

3. 참여기업 인센티브 (Win-Win)

기업 부담금 지원

기업 매칭액의 50% 시비 지원
(월 5만원 지원 효과)

고용유지 지원금

참여 청년 1년 근속 시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우수기업 인증

'인천 청년친화기업' 인증 및
금리 우대, 세무 조사 유예

③ 기대 효과

- (행정 효율) 중복 서류 처리 감소, 운영 인력 절감 및 행정비용 절약
- (청년 편의) 평균 신청 시간 대폭 단축, 혜택 누락률 감소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 (기업 참여) 행정 부담 감소로 참여기업 증가 예상

(2)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지역 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보 교류를 지원하여 소속감을 높이고, 청년 간 상호 성장과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정착 의지 강화
- (추진 필요성) 1인 가구 청년 증가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정보 교류 부족으로 정책 및 취업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향성 증가
 - 인천 청년의 지역 소속감 3.2점(5점 만점)으로 낮음

②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내용

- 3명 이상이 모이면 신청가능하고 심사없이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A4 1장 분량의 활동계획서만 제출하면 심사 없이 선착순 지원
- 최소한의 활동보고를 통해 자연스러운 정보교류 및 청년 문화 자연 형성 유도
 - 월 20만 원 (식비, 다과비, 재료비 등),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영수증 간편 제출 (카톡 사진도 가능) 허용
- 모임유형을 자유롭게 열어두되 SNS를 통한 최소한의 활동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
 - SNS를 통한 인천시 청년 공간 등 홍보 효과도 자연스럽게 유도
- 모임 공간 필요시 유유기지 무료 대관 및 강사 초빙 시 강사비 별도 지원

③ 예산 계획

- 예산은 모임 활동비, 홍보 및 모집비, 플랫폼 운영비, 네트워킹 행사비 등으로 구성하되 1차 연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이후 자생적 생태계 형성 단계로 계획

④ 기대효과

- (청년) 부담 없이 친구 만들기, 자연스러운 정보 교류, 은둔 및 고독 방지
- (지역) 청년 문화 자연 형성, 지역 애착 증가, 커뮤니티 자생력 확보

[그림 9-9]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3) 인천 청년고용 안심 지원사업

①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함.
- (추진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원하는 직무 및 임금 부족'으로 인한 인천 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고용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② 세부 운영방안 및 지원내용

- (대상 발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인천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청년 드림기업'으로 선정하고, 만 18세~39세의 구직 단념 및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여 연간 100~140명 규모의 정규직 매칭을 추진함.
- (투트랙 지원)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와 청년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①기업에는 월 100만 원의 인건비(최대 12개월)를, ②청년에게는 근속 구간별(6개월/12개월) 총 120만 원의 인센티브(지역화폐)를 지원하는 'Win-Win 패키지'를 운영함.
- (사후 관리) 단순 채용 연계를 넘어 반기별 현장 점검과 고용 유지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대우를 방지하고, 중도 이탈 시 대체 인력을 신속히 매칭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함.

③ 예산 계획

- 총 90억 원(기업 인건비, 청년 인센티브, 운영비 등 전액 시비)으로 구성하되, 2026년 16억 원(100명)에서 시작하여 2030년 20억 원(14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함

④ 기대효과

- (청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확보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으로 지역 사회 조기 정착 및 삶의 질 향상
-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인재 유입으로 조직 내 혁신 동력 확보
- (지역사회)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통해 인천 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그림 9-10]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STRATEGY 4. 청년친화 기업생태계 조성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가칭) 청년드림일자리 프로젝트

"기업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청년엔 안정적 정착의 희망을!"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종류에 따른 대체 사업 필요
- 인천 청년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관내 기업 구인난 해소
- 정규직 일자리 매칭을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

🏢 사업 대상

기업 인천 소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이 일하기 좋은 '드림기업' 선정

청년 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연 100명)

투트랙(Two-Track) 지원 내용

기업 지원
인건비 부담 완화

월 60만원 지원
(청년 1인당 / 최대 12개월)

+

청년 인센티브
장기근속 유도

최대 120만원 지급
(6개월 60만 + 12개월 60만 / 지역화폐)

✔ 기업은 인건비 절감, 청년은 목돈 마련 및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

3. 추진 절차

STEP 1
모집 공고
참여기업/청년 모집

>

STEP 2
매칭 및 채용
정규직 근로계약

>

STEP 3
지원금 지급
인건비(매월)

>

STEP 4
인센티브
근속 확인 후 지급

>

STEP 5
사후 관리
고용유지 모니터링

4. 연도별 목표 및 예산 (전액 시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자 수	70명	100명	110명	120명	130명	530명
소요 예산	7.5 억원	10.5 억원	11.5 억원	12.5 억원	13.5 억원	55.5 억원

* 1차년도(2026): 100명 × 6개월 지원분 반영 (하반기 채용 기준)

2. 단계별 실행 로드맵 구성

○ 인천시 청년일자리 정책 5개년 통합 로드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9-11] 인천 청년일자리 정책 5개년 통합 로드맵

MASTER PLAN				
인천 청년일자리 정책 5개년 통합 로드맵				
1차년도~5차년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중장기 비전				
전략 (STRATEGY)	주요 사업 (PROJECT)	1단계 (1차년도) 기반 구축 및 시범 도입	2단계 (2~3차년도) 사업 확대 및 고도화	3단계 (4~5차년도) 생태계 완성 및 안정화
전략 1 미스매치 ZERO	실무형 인재 리버스 인턴십	5팀 (25명) Pilot	10~20팀 확대 Expansion	30팀+ (150명) 정규 사업화
	회복 지원 인천형 캠퍼어	20명 (1기) 시범 운영	연 60~100명 상·하반기 운영	연 150명 이상 상시 운영 체계
전략 2 생애주기 통합지원	진로 설계 커리어 멘토링	20명 (공기업) 핵심 그룹	50명 (민간확대) 분야 다양화	100명 (안정화) 멘토링 문화 정착
	플랫폼 유스톡톡 고도화	개인 맞춤 개발 챗봇 확대	시스템 통합 맞춤 추천	초개인화 서비스 완전 자동화
	거버넌스 행정체계 개편	담당관 기능강화 통합 DB 구축	일자리센터 설립 공간 조성 및 운영	청년미래재단 출범 및 확대
전략 3 디지털 인재양성	역량 강화 청년도약기지 디지털 과정	2개 시범 과정 사무/마케팅 융합	4~6개 확대 과정 전 분야 적용	전 과정 디지털화 선도인재 배출
전략 4 친화기업 생태계	재직자 지원 통합지원 시스템	시스템 구축 핀스톱 가입	자동 전환(Auto) 근속 연동 강화	완전 정착 복지·자산·주거 완성
	커뮤니티 청년 모임 지원	10개 모임 시범 지원	30개 모임 확대 멘토링 확산	50개 이상 자생 생태계
	고용 인식 청년고용안심 지원사업	70명 (매칭) 시범 도입	연 110명 확대 인센티브 강화	연 130명 정착 장기근속 유도

● 전략1: 미스매치 해소 ● 전략2: 생애주기 통합 ● 전략3: 디지털 인재 ● 전략4: 기업 생태계

